dailylocal
전국 국내산 특산품 쇼핑몰
www.dailylocal.닷컴

문화매일

제 1355호 2023년 3월 3일 금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10만㎡ 조성… 미세먼지↓ 보행편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 113종 도입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가뭄·폭우·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변 보행공간 및 유휴지 등에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10만㎡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중부지방에서 생육이 양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 113종을 도입하여 기존의 같은 높이의 나무들이 일렬로 있던 띠녹지를 높이가 다른 여러 나무를 혼합하여 식재하는 다층구조의 가로숲길로 조성한다.

도로 주변의 담장·방음벽 등 구조물에는 덩굴 식물로 벽면을 녹화하고, 교통섬 등 유휴지에는 녹지와 함께 의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잠깐 쉬어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보도와 녹지의 경계 구분을 위해 설치했던 녹지 경계석을 빗물 저장·이용 시설로 대체해 폭우·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다. 여름철 폭우 때는 빗물을 저장해 표면유출수 감소 등으로 홍수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봄·가을 가뭄 때 저장된 빗물을 녹지에 제공하여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도심 보행공간 ▲교통섬 등 도로 유휴지 ▲초등학교 통학로이며, 올해 연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도심 보행공간 중 가로수만 일렬로 있던 공간은 보도폭과 가로유형을 고려해 선형의 띠녹지 1만㎡를 새롭게 만들고, 조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띠녹지 2만8천㎡는 다층구조 및 빗물 저장·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한다.

또한 가로수가 비어있는 곳(공분)에는 가로수 7백여 주를 메워 심고, 가로수 성장으로 규격이 맞지 않게 된 가로수 보호틀·덮개 15백여 개도 정비하여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 유휴공간 6만3천㎡에는 화사한 꽃이 피는 다년생 지피식물 등을 심어 녹화하고, 일부는 기존 가로수, 띠녹지와 연계하여 휴게시설 설치 등 8개소의 "정원형 가로숲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꽃을 보며 잠깐 쉬어 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초등학교 통학로 6개소에는 산림청과 협업하여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는 사업으로 가로숲길 2.9km를 조성한다. 어린이들을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로수 사이사이 키

작은 나무(관목), 중간 키 나무(아교목), 지피식물을 촘촘하고 두텁게 심는다.

서울광희초등학교, 서울숭덕초등학교, 서울길음초등학교, 서울이문초등학교, 서울북성초등학교, 서울녹번초등학교 등 6개 통학로에 조성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가로숲길이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활기를 더하는 녹색쉼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가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은 존중받고 예우 받아야"…보훈문화 확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 두 기관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부모님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재외동포청 초청인사 등 총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은 수많은 초청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기관의 출발을 알리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와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재외동포청 신설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도 남겼다.

서명을 마친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별, 분야 별 맞춤형 동포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재외동포 보호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참석한 보훈가족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어르신들에게도 오랫동안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건넸다.

특히, 1965년 파월 장병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산화하신 고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 온영순 여사, 아들 강병훈님과 인사를 나누며 "64년에 태어나신 아드님이 1년 만에 아버님을 떠나보내게 되어 상심이 크셨겠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최광수/기자

환경부, 수소 화물차 수요, 민관 손잡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환경부는 3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수소 화물차 수요 발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수소 화물차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화물차 생산자와 수요자인 주요 지자체와 물류사 간의 공급-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소 화물차와 연계하여 올해 수소 화물차 보급 목표를 100대로 확대했으며, 수소 화물차가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의 수요 발굴과 더불어 환경부는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68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내연기관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미세먼지(PM 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141배나 많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수소 화물차는 적재량 11톤급의 대형 화물차로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369.3km에 이르는 등 소·중형(1톤~3톤) 화물차 하루 평균 운행거리인 278.9km에 비해 32.4%가 높아 무공해차 전환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1톤급 수소 화물차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에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 물류사에 총 5대의 11톤급 수소 화물차를 1년간 운행하여 성능을 점검하고, 실제 운행 결과를 수요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수소 화물차 국비 보조금 단가를 2021년 2억 원에서 2022년 2.5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소 화물차를 동일 톤급의 경유 화물차(1.6~2.1억 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에 대해 1kg당 4,1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물차 전용 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자체 기준으로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보급된 수소 화물차는 올해 상반기 중에 아산시 지역 농산물을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창구(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아 대형 상용차에 특히 적합하다"라며, "보급 초기 단계인 수소 화물차의 보급을 위해 현장 중심의 수요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충북만들기에'온 힘'

도민 환경교육, 일회용품 줄이기,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등 추진

충북도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부문부터 생태탐방로 등 자연친화 SOC 구축까지 환경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역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환경의 날 행사에서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올해부터 '충북환경교육센터'에 3억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단양 남한강 수변, 진천 백곡저수지 등 7개소에 421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국가생태탐방로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충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제천 솔방죽, 음성 금정지, 충주 가흥에 66억원을 들여 생태 공원을 조성해 도심 속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훼손의 주범인 1회용품 줄이기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비 42억을 확보해 청주시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구축 중으로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앞으로 음식점, 카페, 장례식장, 영화관 등과 연계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획기적으로 일회용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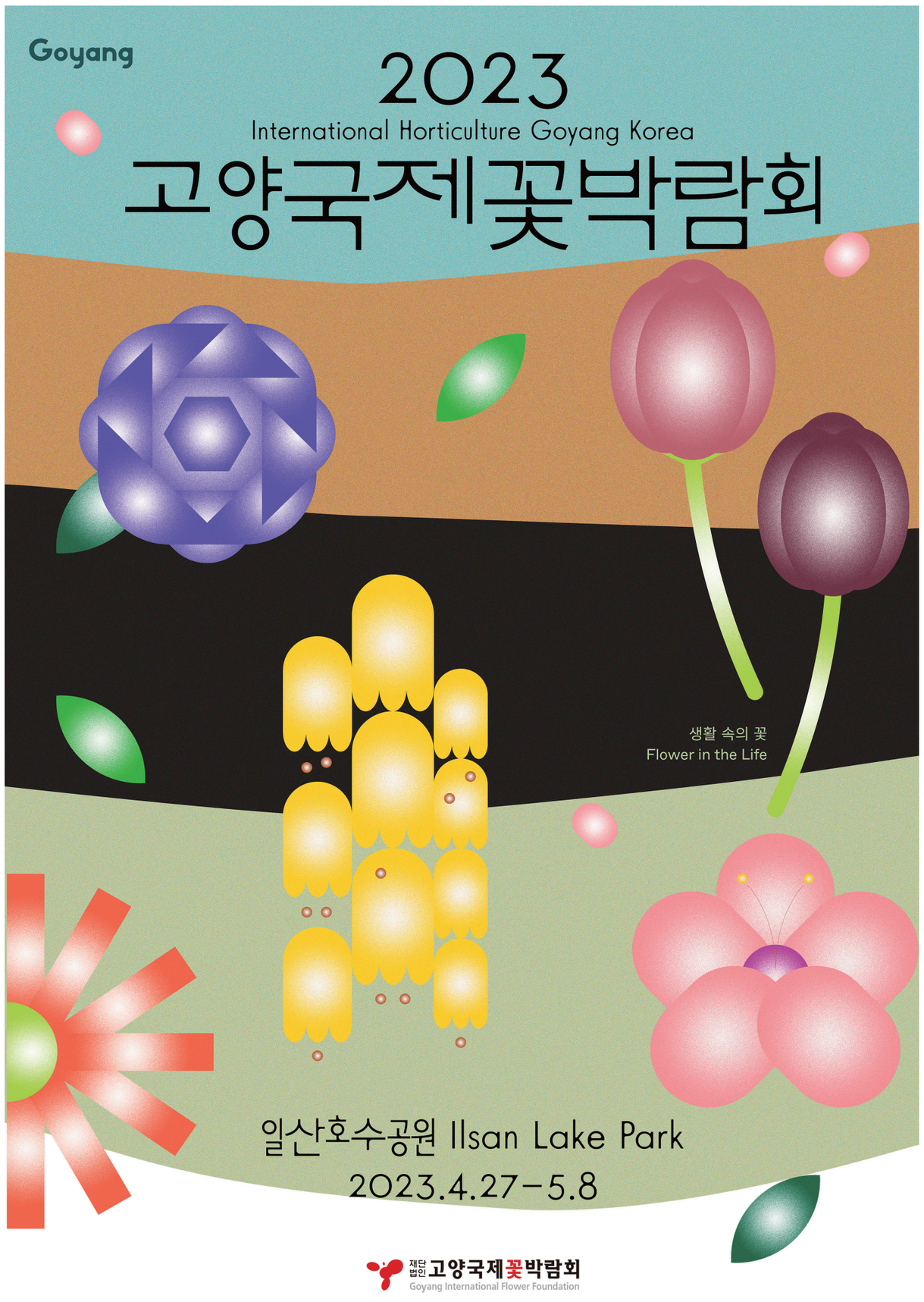
특히, 도정 홍보용 종이가방을 기존 비닐코팅 재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질로 변경 제작할 계획으로 '환경 친화도 충북'의 이미지 제고와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여기에 그동안 폐기물 처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에도 적극 힘쓴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도내 10개 시.군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처리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농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농폐기물 무단방치, 불법소각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재활용가능자원 거점배출시설 구축(21개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4개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2개소),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은 "쓰레기, 폐기물 등의 업무는 무관심하거나 기피하는 업무지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토사유출에 따른 도시철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토사유출에 따른 도시철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오후 15시 도시철도 3호선 미남역을 방문하여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부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토사유출에 따른 도시철도 운행상황과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았다.

이어서, 사고에 따른 서행 운전구간인 미남역~만덕역 구간 운행 전동차량을 직접 탑승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 태세 등 도시철도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각종 재난 . 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과 도시철도 전구간에 걸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사 현황을 전수 조사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주문하는 등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도시철도 3호선 미남역~만덕역 구간은 사고 현장에서 불과 32m 떨어진 곳으로 지난 25일 토사유출 사고 이후에도 전동차 운행이 계속되다가 사흘이 지난 27일 오후 5시 이후에야 시속 70㎞에서 25㎞로 서행 운전하도록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안전불감증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부산시의 밀실행정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앞으로도 도시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 참석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8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초대 주인공이 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서울예술상은 예술인에게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됐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5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중 선정), 최우수상 5개, 우수상 5개 총 10개 작품 또는 예술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날 대상은 전통 분야 '허윤정 ' 악가악무 - 절정 絶靜''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연극 '코너스톤 ' 맹'', 음악 '정보경댄스프로덕션 ' 안녕, 나의 그르메'', 무용 '음악 오늘 '율, 동, 선'', 전통 '허윤정 ' 악가악무 - 절정 絶靜'', 시각 '이은우 '직각 마음'', 우수상은 연극 '래빗홀씨어터 '정희정'', 음악 '정형일 Ballet Creative 'Edge of Angle'', 무용 '팀프앙상블 '사운드 온 디 엣지'', 전통 '김용성 '流 - 심연의 아이'', 시각 '돈선필 '괴·수·인''이 수상했다.

김현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예술상 안에는 갖은 질곡에도 순수예술의 길을 올곧이 걷고 계신 예술인들을 향한 찬사와 응원이 담겨 있다"며,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가 예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예술의 역사는 변화에 맞선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장은 "시대의 무수한 도전을 발판삼아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해 온 위대한 예술가들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문화와 함께 비약할 것이고, 도시는 문화를 지렛대 삼아 미래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위대한 예술가들의 심장을 박동케 할 영감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 발언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며,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부터 약 2년여 동안 교육전문가, 유관기관, 교육단체 활동가, 학부모 등이 참여해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2021년 12월 31일에 제정"됐으며, "본 조례 제정 공동발의자로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에 본 조례폐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는 작년에만 12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전국 48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폐지 사유인 유사성과 중복성에 대해"'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학교 밖 학교 사업을 담고 있지 않고,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생태계구축은 본 조례와는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 조례가 없이는 지속적인 지역 교육력의 제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본 조례가 수원시 마을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이 될 수있도록 "이제 겨우 뿌리 내려가는 새싹에 기회를 달라"고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며 반대토론 발언을 마쳤다.

조혜영/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 유관기관 및 시설 현장 방문… 소통 행보 이어가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2월 28일 대야평생학습관과 시흥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관기관 및 시설에 대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호조벌 현안 해결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 취약계층 일자리 기관 현장 방문,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와의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교육복지위원회는 대야평생학습관을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지난 1995년 개관한 대야평생학습관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장애인 엘리베이터, 대공연장 냉난방기 설치, 객석 의자교체 등 향후 환경개선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보수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단계적 예산확보를 통해 시설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야동에 위치한 시흥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아동학대 사례관리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원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칭찬하고, '아동보호'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앞으로도 제 역할에 충실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용/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늘푸른 청송교육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Cheongsong Office of Education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해빙기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나서

28일, 재개발 현장 등 4개소 특별안전점검, 구민안천 최우선 강조

관악구가 기온 변화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3월 16일까지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으로는 급경사지, 옹벽, 석축 등 노후시설물, 도로 및 건설공사장 등 주요 안전취약시설 188개소로 점검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 보강 등 긴급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28일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옹벽·육교, 전통시장, 재개발 공사장 등 안전 취약시설 4개소를 직접 순찰, 점검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건축현장 안전실태, 안전교육 등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서 박 구청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순찰과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초구,'따뜻한 겨울나기'목표액 132% 달성...약자와의 동행 실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서울 서초구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총 16억 5749만원을 모금해 당초 목표액의 132%를 달성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12억 5000만원보다 4억여 원이 웃도는 금액이다. 지역 내 다양한 기업·단체, 개인 기부자들이 참여해 총 1,391건, 성금은 10억 5029만원, 성품 6억 720만원이 걷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서초구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모금활동을 펼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코로나19와 가파른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계각층의 개인·단체·기업의 기부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마음으로 성금과 성품을 전달했다.

특히 ㈜용마일렉트로닉스(잠원동 소재)는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해 저소득 취약가구 및 복지시설을 지원했으며, ㈜KCC글라스(잠원동 소재)에서도 1억 원의 성금을 후원해 자립준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 임직원이 함께 동참하여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기부하는 기업 △ 용돈을 모아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을 가져온 아이들 △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도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소상공인 등 많은 기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모금된 성금은 먼저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에너지 취약가구 2,000가구에 대해 난방비 총 1억5000만원이 지원됐으며,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쌀·김치·난방용품 등의 성품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즉시 배분됐다.

한편 구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모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 구청사 내 '사랑의 온도탑' 및 홍보물 설치 △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기부방법 홍보 등을 했으며, 작년 12월에는 기부자 100명을 초청해 '서초의 미래, 기부자 100인과의 동행' 행사도 열었다.

이와 함께 기부자들의 이름이 LED 화면에 송출되는 '서리풀 기부의 벽'을 구청 2층에 마련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나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더 많이 챙기는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 회장과 면담… 교류협력 논의

스페인의 축구 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 표명 등 정책 관련 환담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2일 집무실에서 루이스 루비알레스(Luis Rubiales)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RFEF) 회장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스페인 간 축구 문화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는 1909년 스페인 축구 클럽 협회로 출범, 1913년 현재의 명칭으로 설립된 유서 깊은 축구 협회이다. 이 협회는 스페인의 국가대표팀 관리 및 컵대회, 여자 경기, 유소년 경기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 간 축구 문화 및 사업 교류를 위해 첫 방한 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축구 선수 출신으로 스페인 프로축구선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26대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 회장과 유럽 축구연맹(UEFA) 부회장을 맡고 있다.

3월 1일~3월 5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스포츠 및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축구 선수 출신인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의 활발한 활동에 관심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 서울과 스페인 간 축구 문화 교류 및 유소년 선수 발굴 등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서울시-스페인 간 축구 문화 교류 뿐만 아니라 엘 클라시코(El Clásico)와 같은 스포츠 빅 이벤트, 도시간 친선 경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엘 클라시코(El Clásico)는 스페인 프로축구 최고 명문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로 120년 역사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더비 매치(Derby Match)이다.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2030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도전하는 스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이 서울-스페인 간 교류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국에도 축구팬이 많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과의 친선경기 등 스포츠 빅 이벤트가 열릴 수 있다면 축구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며,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제안해 주고, 시민들이 즐거워할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다"라며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최광수/기자

은평구, 전통주에 진심인 청년들 모여 힙한 전통주 빚는다

색다른 전통주를 빚는 양조장 '라이스그루브(Rice Groove)' 개소식 개최

은평구는 지난 25일 '은평 한잔 빚음 사업'의 결실인 색다른 전통주를 빚는 양조장 '라이스그루브(Rice Groove)'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은평 한잔 빚음 사업'은 작년 서울시와 함께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통주 분야 취·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선발해 전통주 양조 교육, 양조장 창업 컨설팅, 제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전통주 전문 교육기관 막걸리학교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했다. 작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도 지원을 이어간다.

양조 교육을 수료한 20명 중 12명이 공동으로 지난해 7월에 양조장 법인을 설립했으며, 개소식과 함께 시제품 '반딧불'을 출시했다. '반딧불'은 찹쌀의 은은한 단맛과 라임의 산뜻한 산미에 허브향까지 어우러져 전통주를 즐기는 젊은 소비자의 입맛을 겨냥했다.

라이스그루브는 시제품 '반딧불'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두 번째 술을 출시하기 위해 레시피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공산품으로써의 술이 아니라 문화상품으로써의 술을 빚고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종희 라이스그루브 대표는 "멤버 전원이 청년으로 구성돼있어 인지 기존 전통주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전통을 재해석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양한 부재료를 사용해 젊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술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해에는 양조교육과 양조장 창업을 지원했다면 올해는 관내에 설립한 양조장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민 대상으로 양조 교육사업 실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할 예정이다"며 "단순히 청년 양조인의 양조장 설립을 지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금천구,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신규 발굴 추진

금천구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신규대상자 발굴을 추진한다.

금천구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사업이다.

대상은 아동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초기상담 및 양육환경 조사 후, 사례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 신체건강 △ 인지언어 △ 정서행동 △ 부모가족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자원 및 후원기관 연계를 통해 후원 물품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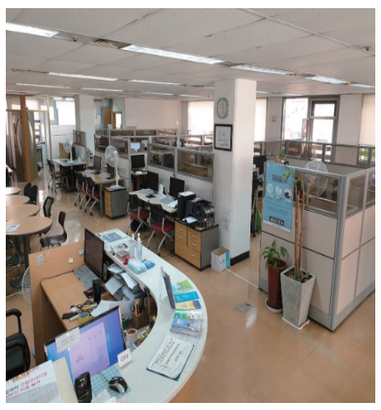
특히 올해에는 생애주기 중 인지, 정서, 행동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과 놀이 지원, 아동 발달 부모 교육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천구 드림스타트는 지난해 254명의 대상자에게 기초학습향상, 건강관리, 심리치료, 놀이동산 이용, 후원 물품 전달 등 4,104건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자원발굴을 위해 어린이치과의원, 태권도 학원, 키즈카페 등 지역의 아동 관련 기관 17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든든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올해도 최우수' 성북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12년 연속 성과평가 최고등급



성북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주관 '2022년도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개소한 성북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성북구 동소문로 63)는 창업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평가로 인해 전국 48개 센터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이 됐다.

성북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는 성북구와 성북구상공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31개사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입주석과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사무실 공간이 내부에 마련돼있다.

1인 창조기업을 위해 ▲창업교육, ▲네트워크 활동, ▲전문가 멘토링, ▲기술·법률·세무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정부사업 선정과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개소 이후 현재까지 ▲신규 창업 153개사, ▲고용창출 338명, ▲매출 45,818백만원, ▲지식재산권 출원 140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북구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지원센터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비롯한 성북구-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손잡고 공급하는 창업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도전숙'도 운영하여 스타트업의 창업에서부터 주거 지원까지 창업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것은 창업 육성을 위해 민·학·관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성북구는 창업하여 성공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둥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홍콩 찾아 인천 알리고 투자유치 파트너십 강화

홍콩한인상공회, 한인 기업 인천 유치 협력과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지지

인천광역시는 홍콩 출장길에 오른 유정복 시장이 3월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이하, 홍콩무역관)을 방문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의 첫 일정을 홍콩무역관으로 정한 이유는 해외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현지 비즈니스 정보제공 등 홍콩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들을 먼저 살펴 향후 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어재선 홍콩무역관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국제정치·경제의 격변기 속에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동향을 접하면서 지금이 바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국제비즈니스 환경을 널리 알려 역량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시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 바이오·반도체·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강화군·옹진군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매력적인 투자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어재선 홍콩무역관장은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화상상담 핫라인 등 온·오프 상담창구를 활용해 인천시 주력 산업군의 투자유치와 관련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가교역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비즈니스 미팅, 투자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기업 유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발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홍콩무역관 방문을 마친 유 시장은 한국관광공사 문선옥 홍콩지사장, 홍콩관광청 관계자와 함께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 사례 등을 둘러봤다.

홍콩정부가 1998년부터 국책 장기 프로젝트로 한화 약 3조 1,6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서구룡 문화지구는 홍콩의 주요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 수변 연접 부지에 박물관, 공연장, 그리고 녹지 공간과 해안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곳을 둘러본 유정복 시장은 "해양국제도시인 인천과 홍콩은 인프라 여건이 유사해 양 도시 간 경제, 문화 등 다방 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도시"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을 만들어 인천의 관광명소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는 홍콩한인상공회 신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1976년 설립된 홍콩한인상공회는 한국과 홍콩 정부 등에서 협력적 비즈니스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25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유 시장은 홍콩 현지 한인기업들의 상황과 비즈니스 정세 등을 청취한 후, 인천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설명하면서 홍콩에 한인기업들 중 인천에 관심 있는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기관은 투자유치 상담, 기업 컨설팅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관련해서도 한국 최초의 이민자가 출발한 인천의 역사성,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접근성과 편리성, 이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친화적 인프라 등 인천은 재외동포청 최적지이며, 재외동포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 등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홍콩한인상공회는 신 회장은 "인천이 훌륭한 후보지라는 점에 적극 동의하며, 재외동포청이 성공적으로 유치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인프라, 산업 및 정주 환경, 영어 인재 활용 등 인천시의 우수한 국제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홍콩 유관 기관들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 세계 초일류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재외동포청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남/기자

고양특례시, 관광도시 지로나에서 꽃박람회·미식거리 등 관광콘텐츠 활성화 방안 논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일(현지시간) 스페인 지로나(Girona) 시를 방문해 꽃축제, 미식거리 등 관광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로나(Girona) 시는 카탈루냐 북동부, 바르셀로나에서 100㎞ 거리에 위치하며 헤로나(Gerona)로 표기하기도 한다. 미국드라마 왕좌의 게임, 한국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알함브라의 궁전', 영화 '향수' 등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또한 매년 5월 둘째·셋째 주말 지로나 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로나 꽃 축제는 시 인구의 3배 이상의 관광객이 축제 기간 동안 지로나 시를 찾게 만드는 중요한 관광 콘텐츠다.

지로나 꽃축제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가꾸는 꽃과 화분을 광장으로 가져와 다함께 즐기는 문화에서 시작됐다. 6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지로나 꽃 축제로 성장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도 지로나 꽃 축제처럼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로나 시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엘 세예르 데 깐로까(El Celler de Can Roca, 미슐랭 3스타)레스토랑을 포함하여 16개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보유한 미식도시이기도 하다.

깐로까 레스토랑(El Celler de Can Roca)은 2019년 The Best of the Best에 선정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다. 현재 가족 사업으로 삼형제(Joan, Josep, Jordi)가 운영하고 있다.

호셉(Josep) 깐로까 레스토랑 운영자는 "지로나의 문화와 전통을 결합하여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하고, 지로나 시의 교육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깐로까 레스토랑만의 정체성을 만들었기에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됐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유치 뿐 아니라 미슐랭 스트리트 조성 등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 맛있는 먹거리, 꽃축제가 어우러진 관광콘텐츠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호셉 깐로까 운영자에게 쉐프 교육 아카데미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호셉 운영자는 "아카데미 설립은 미래를 위해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이천 백사 산수유꽃 축제 4년만에 개최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던 이천 백사산수유꽃축제가 올해로 24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3.24(금)~3.26(일) 3일간 개최된다. 올해에는 산수유꽃이 예년에 비해 조금 일찍 꽃망울을 터뜨려 이를 예측한 이천시와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만개시점을 기준으로 축제기간을 한주 앞당겨 3.24.(금)~3.26.(일)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수유마을은 경사리, 도립리, 송말리 일대 수령이 500년의 산수유나무를 포함하여 1만 여 그루의 산수유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산수유마을은 내방객과 등산객, 축제를 준비하는 이천백사산수유축제추진위원 등으로 활기찬 풍경이다.

본 축제는 3.24(금) ~ 3.26(일) 3일간 도립리, 경사리, 송말리 산수유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며 개·폐막식, 등의 공식행사와 사진전시, 사생대회, 등반대회, 전통놀이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24일, 오후 2시 공식행사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산수유 관련 체험 및 각종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제24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를 찾는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축제장 내 불편함이 없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율/기자

부천국제만화축제, 경기도 대표 우수 지역축제 8년 연속 선정

부천국제만화축제 8년 연속 경기관광축제 선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주최하는 부천국제만화축제가 8년 연속 경기도 대표 지역축제로 선정되며 국내 대표적인 만화전문 축제로 인정받았다.

'2023 경기관광축제'는 경기도가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내 시·군 35개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운영, 안전관리 등 서류·발표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했다.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된 배경은 길었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존의 형식을 버리고 만화관계자와 관람객이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는 축제로 기획되어 만화전시, 마켓·페어, 컨퍼런스 등 도전적인 시도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결과이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국내 최대의 만화축제로 만화가와 만화산업 관계자, 만화 마니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발전해왔다.

1998년부터 이제까지 20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은 우리나라 대표 만화축제다.

한편, 지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2022년 9월'이(異, e, 理,

利)세계'를 주제로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어 4일간 축제주제 이세계의'이'의 다양한 의미('異', 'e', '理', '利')와 해석을 통해 만화 축제의 역할과 지향점 담아냈다는 평이다.

2023년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새로 선임된 축제전문가 유수훈 총괄감독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 문화 향유,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프로그램과 새로운 콘텐츠로 관람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만화축제로 만화산업발전과 관람객의 만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으로 아시아, 경기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윤용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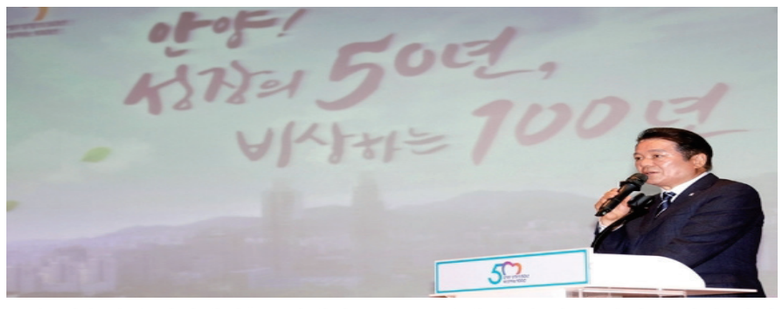
안양시, 시승격 50주년 직원 결의대회 개최…"안양이여, 비상하라"

안양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안양, 비상(飛上)하라!'를 주제로 직원 결의대회를 2일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700여명의 안양시 직원들이 참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며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에서 최근 챗GPT가 등장하는 등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공직자들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5대 비전인 미래도시, 청년특별도시, 경제중심도시, 교육·복지도시, 문화·녹색도시 등과 관련해 "미래 선도 글로벌기업 유치와 안양교도소 이전, 광역철도망 확충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춤형 일자리, 상권 활성화 사업과 각종 청년 지원 및 저출산, 노인복지 정책들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가한 안양시 직원은 "시정 운영계획을 들으면서 안양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직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시 승격 50주년인 올해가 100년 비상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1949년 8월 14일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고,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됐다.

신유용/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산하 공기관 사업, 시민들 체감합니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 산하 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이 용인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산하 공기관 방문 점검에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용인특례시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소재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장학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으로부터 통합 현안 보고를 받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현안 보고에서 "용인특례시와 산하 공기관이 하는 일들이 시민에게 전파되고 시민의 삶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시민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시스템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자"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장학재단에는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의 수혜자를 늘리고,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하고 "시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시의 인재양성에 이바지하는 선순환구조를 앞장서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는 10일까지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등 8개 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지난 27일 안성시 현장 방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7일 오전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공공산후조리원과 반도체특화단지 공모 중인 동신산업단지를 방문해 주요 추진현황 등 사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경기 공공산후조리원은 안성시 옥산동 535번지에 위치하며 2,015.1㎡ 부지면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3,200㎡ 규모로 산모실 20실 내외로 건립되며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7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는 약157만평(1단계 동신지구 48만평, 2단계 109만평) 부지로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및 반도체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대화를 나누며 경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반도체소부장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을 약속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반도체소부장특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타 시로 산후조리원을 다니던 안성시 출산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기쁘며 일자리가 부족하던 안성에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가 생겨 반도체산업으로 더 도약하는 안성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팔 걷어붙여

정명근 화성시장이 28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2023년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안정대책 회의'에는 정명근 시장, 임종철 부시장,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곽윤석 정책실장을 비롯해 각 실소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도 물가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농업분야 경쟁력 확보 등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화성시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에 총 37개 사업, 78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1회 추경에 90억 4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3,000억 지역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10% 지속 지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신속매칭,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액 확대, 수도관 개량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형 긴급지원 연료비를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립유치원 긴급난방비 30만원씩 59개소 지원,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40만원 이내 지원,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기업인·농업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한도증액 및 보증기간 연장,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71억, 공장밀집지대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45억, 농어민 기본소득지원사업 164억 등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업상 중대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일시적인 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환경오염 위반행위 처분관련 과징금 규제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 운영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서민경제 민생안정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김동연 지사,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끊임없이 틀을 깨고 도전하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초청으로 2일 수원시청에서 특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공직자들도 끊임없이 자신의 틀을 깨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초청을 받아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한 김동연 지사는 "공직자들이 '내 임무, 내 역할'에만 한정돼 일한다면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며 "어떤 보직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며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다면 보람있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생은 '남이 나에게 하는 질문',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 '사회가 내게 던지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사회 문제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제가 추구하는 것은 '기회 공화국'"이라며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려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회의 경기' 1번지"라며 "수원시가 변화하면 경기도가 변하고,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연 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다자녀 공무원, 신규 임용공무원, 수원시 최초 외국인 공무원 등과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회복 위한 도민 경제.일자리 인식조사 결과 발표...도의회.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구조적 장기불황'이나 '일시적 경기침체'로 인식하는 등 도민 대다수가 민생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가 꼽혔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도민의 경제상황 체감도를 측정하고, 주민 맞춤형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5차 경기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 경제·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도민의 경제상황 인식, 고용 및 일자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제정책방향 등 4개 분야의 15개 문항이다.

먼저,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구조적 장기불황이다'(66.9%)와 '일시적 경기침체다'(30.5%)라는 부정적 의견이 97.4%로 '경기침체가 아니다'(2.6%)라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기침체의 원인에 대해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에너지 가격 등 글로벌 경제상황' 탓이라는 인식이 4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및 지자체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0.2%),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14.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8.9%), '신성장 동력 미비 등 경쟁력 약화'(6.9%), '민간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5.4%), '기타'(1.3%) 순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도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54.6%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고 34.1%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으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경기도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여론은 긍정평가 39.7%, 부정평가 60.3%로 부정평가율이 높았다. 경기도 경제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의 75.3%가 '지역화폐'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배달특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저금리대출' 등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44.7%, 45.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노력해야 할 분야로 도민의 39.2%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39.2%)라고 답했고, 이 밖에 '경기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생활비 감면'(19.5%),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경제취약계층 지원'(12.9%),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11.1%),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7.7%), '기업인 운영자금 등 융자지원'(4.8%), '창업 지원 및 창업공간 조성'(3.0%) 순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기회 정도에 대해 도민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실업자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일자리 충분도'에 대해 '그렇다'(16.9%)와 '보통이다'(45.6%)라고 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37.5%)라는 부정답변 비율보다 우세했지만, 올해 실업자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40.5%)이라는 분석이 '감소할 것'(13.4)이라는 전망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도민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 10명 중 3명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비인지율은 66.5%로 인지율 3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도가 실업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소개 등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이 33.8%였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20.8%, '실업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20.3%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도민 과반수 이상이 '민생경제 회복'(52.9%)을 들었다. 이어 16.6%가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13.7%가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9.7%가 '미래 과제 선제대응'을, 5.4%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도민인식조사 결과는 도민의 구체적 의견과 바람이 반영된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조혜영/기자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 경기관광축제 선정!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2023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경기관광축제는 경기도 내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축제 운영사항, 발전역량 등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 총 23개의 축제를 선정했다.

공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관광축제 선정평가에서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의 매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고, 그 결과 도비 7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국와인, 광명을 찾다'라는 주제로 올해 제7회를 맞이하는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은 전국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한국 와인의 홍보와 판매를 통해 와인 농가와의 상생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와인페스티벌에서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 와인 시음은 물론 와인세미나, 와인퀴즈대회와 같은 강연, 체험, 공연 등 다양한 와인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일동 사장은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이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명동굴만의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한국와인의 메카'로 불리는 광명동굴은 연중 12도의 일정한 기온과 습도로 와인 저장에 최적화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윤용민/기자

여주 도자기,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전시 성료

경기도 여주시 관광체육과 도예팀은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자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하여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여주시 도자공동브랜드 '나날'은 올해의 컬러인 비바 마젠타를 활용해 강렬하고 톡톡 튀는 부스를 꾸며 방문객에게 활력을 주는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1년여의 기간 동안 항아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항아 제품인 ▲영주헌의 달와 ▲한울디자인의 달하 ▲금사토기의 달사 ▲흙마루의 달메 ▲기억 도자기의 달우 총 5종의 제품이 방문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준비된 제품들은 첫날부터 매진 세례를 이어나갔다. 이번 페어에는 여주시와 함께 관내 도예 업체 ▲솔솔푸른솔 ▲세라믹몽 ▲기억도자기 ▲그루 총 4곳이 참여하여 여주 도자기의 위상을 높였으며 총 96,000천원의 목표 매출액 이상을 달성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여주시는 국내외 주요 축제 및 박람회에 참가한 관내 도예 업체에 판매 부스 조성비 50%를 지원하여 여주시 도자 산업 발전 및 전승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시의 주요 산업인 여주 도자기를 널리 알리고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도자기를 매개로 여주의 문화와 예술, 관광을 지속해서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람회에 전시됐던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트윈도와 인스타그램에서도 다양한 '나날_NANAL'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성율/기자

경기도교육청 4번째, 평택교육지원청 최초의 초·중통합학교 배다리초·중통합학교 개교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하얀 배꽃이 피듯이 배다리중학교가 개교하여 입학식을 가졌다. 작년 9월, 배다리초등학교의 개교에 이어 배다리중학교가 32023.3.1자로 개교하여 드디어 경기도교육청에서 12번째 초·중통합학교가 됐다.

배다리중학교는 올해 153명의 신입생의 입학을 시작으로 매년 5학급씩 증설되어 15학급의 중학교가 될 예정이다.

이미옥 교장선생님께서는 입학식 축사에서 '더불어 살고, 함께 배우며, 즐겁고 신나는 학교생활'을 약속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당부했다. 첫째, 학급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며 사이좋은 친구가 되기. 둘째,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여 품위 있는 배다리 중학생 되기. 셋째,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그림과 음악을 감상하며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 갖추기. 더불어 배다리중학교 교직원은 "경계를 넘어 함께 배우는 행복한 배움"이라는 교표를 바탕으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월부터 신설 학교 개교를 위하여 겸임 발령받아 준비해 온 김승원 중등교감과 중등교원 15명은 교문에 나가 첫 등교하는 새내기 중학생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새로운 출발을 격려해 주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거친 땅에 뿌리 내리 기까지 수많은 비바람과 햇볕의 도움이 있었듯이 배다리중학교 학생들이 좋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다리중학교 교직원 모두는 학생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4번째 초·중통합학교인 배다리초·중통합학교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된다.

양시현/기자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가져

독립유공자 유가족 참석,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 되새겨

경북도는 1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열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달희 경제부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최주원 경북도경찰청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표창 수여 △3.1절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경북도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공연으로 펼쳐진 창작 뮤지컬 '만세의 물결'은 학생들과 함께 일제의 침략과 탄압에 저항해 만세운동을 일으킨 안동 지역 출신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삶을 표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로 선정된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참석자들은 104년 전 그날의 함성을 떠올리며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을 외치고 순국선열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다.

한편 전국에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1만 7568명 중 13.8%에 달하는 2441명이 경북 출신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경북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도는 도로변 가로기 게양과 모든 가정에 태극기 달기 등 애국심 함양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보훈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저력은 바로 국민의 하나 된 힘에 있다는 것을 3.1운동을 통해 배웠다.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굳은 기개를 만방에 펼쳤던 3.1 운동과 세계사에 빛나는 항일 정신의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이 존중받는 '국민행복시대'와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4년만의 오프라인 영덕대게축제, 비상(飛上)하다!

영덕대게축제 다시 비상하다!

영덕대게축제가 4년간의 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건재함을 다시금 입증했다. 지난 24일부터 3일간 삼사해상공원에서 열린 영덕대게축제 본행사엔 축제 기간 내내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찼으며, 강구항과 강구대게거리 일대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

삼사해상공원에만 6만여 관광객 몰려, 영덕대게축제에 사로잡혔다.

지난해 한파와 강풍으로 개최 직전 취소의 아픔을 겪은 영덕대게축제는 올해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단장한 모습이 참여자들의 호응과 함께 성공을 거두며 6만여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주말 기간 강구항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은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 축제 장소를 기존 해파랑공원에서 삼사해상공원으로 변경한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불식시켰다.

때깔부터 달라진 축제, 관광객의 시선을 훔쳤다.

먼저 축제의 서막을 알렸던 차유마을(대게원조마을, 경정2리) 안전기원제부터 변화를 시도해 신선함을 안겼다. 단순한 제례 형식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전통 연희 공연과 재담이 오가는 별신굿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블루로드를 찾은 수백여 트레킹 관광객들에게 산들바람 같은 즐거움을 선사했다.

인근 경정2리에서 열린 축산 스트릿 씨푸드 파티에선 다채로운 먹을거리와 볼거리들로 구성된 새로운 마을 축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청년과 마을 주민의 교감을 기반으로 열린 이 행사는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홍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9개 읍·면 풍물단 퍼레이드, 화합의 인상을 남기다.

축제 볼거리 중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강구 대게거리 퍼레이드 또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덕대게를 캐릭터화한 '덕이대장' 거대 인형을 선두로 풍물단을 포함해 300여명이 넘는 지역민이 함께 준비하고 펼쳐진 퍼레이드는 축제의 상징이 될 만큼 장관을 이뤘다. 특히 마지막 도착지에서 9개 읍·면의 풍물단이 한데 모여 펼치는 흥겨운 타악연주는 지역민들에게도 화합의 메시지를 남긴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후문이다.

비장의 한 수, 지름 25m '투명 에어돔'

본 축제장인 삼사해상공원에서도 진귀한 풍경이 이목을 끌었다. 지름 25m에 달하는 투명 거대한 에어돔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볼거리였지만 2월의 쌀쌀한 날씨에도 추위 걱정 없이 축제에 참여해 획득한 대개와 각종 먹거리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다.

시설 안에서도 축제장의 풍경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이색적인 에어돔은 축제 기간 방문객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가히 2023년 영덕대게축제의 하이라이트이자 비장의 한 수라 평가된다.

지역민이 참여한 영덕 읍·면 먹거리 부스는 기존 몽골텐트에서 벗어나 축제 컨셉을 담아낸 컨테이너 부스를 마련해 인기를 끌었다. 먹거리 또한 대게살 주먹밥, 대게 파전 등 참가 읍·면 모두 영덕대게를 활용한 음식을 선보였고, 깔끔하고 세련된 설비와 대게를 활용한 먹거리는 방문객의 입맛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전에 없던 높은 매출을 올렸다.

영덕대게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대게 낚시, 대게 달리기, 대게 경매 또한 참가 신청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행사장 바로 옆에서 바로 쪄내는 대게는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참가자들과 호응하며 펼치는 즉석 공연은 체험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한껏 높였다.

주민, 축제의 주축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다!

지역 읍·면 주민의 경합 프로그램인 대게탈축구, 대게줄다리기, 축제송 플래시몹 공연도 기대 이상의 재미를 선사하며 방문객들에게 후한 점수를 얻었다. 대게거리 퍼레이드, 읍·면 먹거리 부스와 함께 축제의 주축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은 축제 추진위가 뽑은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수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축제 추진위는 대게 낚시, 대게 달리기 등 대표 체험 축제장의 크기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부터는 축제장의 크기를 키우고 스탠드 객석을 마련하는 등 관람객들의 편의성과 재미를 향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관리가 축제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서 이번 영덕대게축제는 행사를 무사히 치러내기 위해 관련기관과 단체가 나서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영덕 경찰서와 영덕소방서에서 각각 160명과 52명을 축제장과 국도변에 배치했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영덕대게축제추진위 박오수 위원장은 "4년 만의 오프라인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되어 더없는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축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영덕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운영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께 MVP를 드리고 싶다"며, "사시사철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 찬 영덕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영양군, 지방소멸대응 및 인구정책 분야 영양군민 정책제안 공모 시행

영양군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 동안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 분야의 영양군민 정책제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 군의 위기인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영양군민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

공모주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영양군정에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제안 일체로서 인구활력 증대방안,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지역인재 양성방안, 생활환경 조성방안, 저출산 극복방안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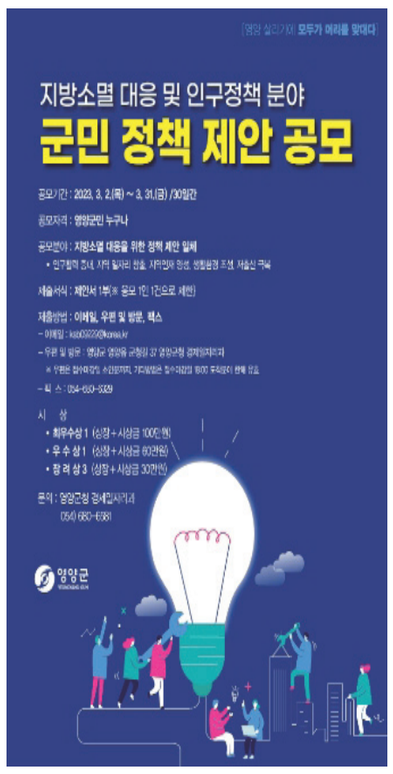
응모 방법은 영양군 홈페이지 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혹은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다.

군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1명(60만원), 장려 3명(각 30만원)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시상금 총 2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는 공모 주관부서인 경제일자리과와 제안 정책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심사를 진행한 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필요성,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연계성, 노력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영양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산시-경산경찰서, 피싱 STOP! 경산시민 자산은 우리가 지킨다.

전국 최초 지자체-경찰서 협업, ·시민 대상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경산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 유발 및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목표로 전 시민 대상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경산시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모두 130건으로 피해액은 17억 5천만 원에 달한다. 대면편취형, 계좌이체형을 포함하여 상품권, 가상자산 편취 등 다양한 변종 수법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출사기형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악용하여 정부 지원 대출을 가장해 지난해 경산시민에게 12억 2천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는 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수법이다.

이에 경산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자 경산경찰서와 협업해 2021년 12월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피싱의 종류, 실제 피해 사례, 예방법 등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전 시민 대상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로, 경산시민의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교육을 위해 경산시는 시민강사 3명을 선발해 2일, 시장 접견실에서 '경산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강사'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 강사 3명은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의 강의 요청에 따라 관내 어디든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교육은 경산시민 누구나, 최소 10인 이상이 모이는 곳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산경찰서 수사지원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요즘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노리며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다.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통해 경산시와 경산경찰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우리 경산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대응 수준을 높여 보이스피싱 안전도시 경산 조성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아이 웃음 소리로 가득찬 영천으로!

영천시는 2일 아침부터 시청오거리에서 인구증가 및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천시 인구교육과, 홍보전산실, 총무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60명이 참여해 열띤 홍보에 힘썼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족의 소중함과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범시민적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저출생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출산과 육아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문제임을 홍보해 영천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매월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저출생 극복의 일원으로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첫째자녀 300만원, 둘째자녀 1300만원, 셋째자녀 1600만원, 넷째자녀 이상 1900만원),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 분야에서는 산모보약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합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운주산휴양림, 치산캠핑장 사용료 감면, 영천시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영탁/기자

함양 • 안의향교 춘기 석전제 봉행

함양군은 지난 2월 28일 오전 함양향교와 안의향교에서 각각 유림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의향교 석전제에는 진병영 함양군수가 초헌관을, 임흥산 서하면장, 김성목 북상면장이 각각 아헌관과 종헌관을 맡아 선성, 선현들의 덕을 기렸다.

또 함양향교 석전제에는 강기형 전 함양향교 전교가 초헌관을, 임상태·진경도 유림회원이 아헌관과 종헌관을 맡아 제향 의식을 봉행했다.

석전제는 매년 음력 2월, 8월 상정(上丁)일에 공자(孔子)를 비롯한 선현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안의향교 석전제 초헌관을 맡은 진병영 함양군수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향교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광용/기자

포항시민의 건강·쾌적한 생활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지원 한도 기존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대폭 확대 추진

포항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500동, 주택 지붕개량 35동,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 45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 가구 700만 원, 취약계층 전액 한도,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전액 한도로 지원하며,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때 지원한다.

단, 개인이 철거한 후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희망자는 건축물 사진, 건축물 등록대장 등의 자료를 갖춰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업체가 방문해 면적조사를 진행하고 철거 및 개량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26동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83억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건축물 3,054동을 처리한 바 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달성군, 찾아가는 이동종합복지서비스 실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강림3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종합복지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체인 달성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이동종합복지서비스는 여건이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가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 날 강림3리 경로당에서는 근처에 거주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방문해 복지상담, 건강 체크, 이·미용, 발마사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 어르신들의 이발을 해주던 한 이·미용 자원봉사자는"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이동종합복지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었다."며, "오랜만에 다시 재능기부봉사를 하게 됐는데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뿌듯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그 뜻을 전했다.

또한, 밖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불 빨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이불을 쌓아두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빨래를 해주니 너무 고맙다."며 미소를 지으셨다.

특히 이동종합복지의 하이라이트인 민요공연 때는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춤추며 그 흥을 마음껏 발산하는 등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이동종합복지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됐으며, 이번 옥포읍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노인인구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주민들을 찾아가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이철우 도지사, KT·베어로보틱스사와 협력강화, AI경북 시동건다

MWC 2023에서 구현모 KT 대표이사 만나 초거대AI 협력방안 논의

경북도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KT, 실리콘밸리 유망 스타트업인 '베어로보틱스'를 차례로 만나 AI+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MWC 2023에서는 KT관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관에서 서비스로봇 기술의 미래에 관해 전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북도는 KT의 초거대AI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KT의 초거대AI '믿음'기반기술을 경북의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과 치매예방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28일 베어로보틱스와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경북을 서비스로봇의 글로벌 제조 기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

베어로보틱스는 2017년 인텔,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하정우 대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세계 최초 자율주행 서빙로봇 기업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서빙로봇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동남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AI+서비스로봇 보급지원과 AI+서비스로봇 관련 규제혁신, AI+서비스로봇 개발 및 활용분야 전문인력 양성, AI+서비스로봇 데이터 플랫폼 얼라인언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는 "경상북도는 AI+서비스로봇 제조역량이 뛰어나다"며 "실증데이터 축적과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AI+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실리콘밸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스타트업의 성공 노하우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에 감명 받았다"며 "스마트폰 제조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을 차세대 제조 플랫폼 개발이 절실한데, 이번 KT와 베어로보틱스의 미팅을 계기로 AI+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해 향후 경북도가 AI 미래 핵심기술을 선도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2026년까지 바이오헬스산업에 총 924억 원 투입

경상남도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유행(엔데믹) 이후 세계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바이오 분야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범정부적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도 올 한 해 253억 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의생명·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 ▲임상연계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2026년까지 총 924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헬스 분야를 첨단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체질 개선에 나선다.

먼저,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7개 사업에 213억 원을 투자해 산업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존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로의 전환을 위해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28억 원,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실용화 기반구축 사업' 23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의생명·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해 차세대 유망 의생명·의료기기 개발부터 임상 및 판로까지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술 사업화를 돕고, 성공적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료용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임상연계 산·학·연·병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채택된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에도 착수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경남의 바이오 특화분야를 상호 연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2024년 정부 예타사업에 도전함으로써 경남의 바이오헬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방침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효과도 큰 만큼, 선제적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단순 의료기기 제조산업 중심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로 전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남이 디지털헬스케어 선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천영기 통영시장, 2023년 3월 직원 정례조회서'위기상황 속 기회를 찾아내는 현명한 낙관론자 되어달라'강조

천영기 시장 3월 직원 정례조회서 어려운 여건 속 위민 행정 주문

통영시는 지난 3월 2일 시청강당에서 계묘년 시무식 이후 모처럼 두 달 만에 전 직원이 참석한 3월 직원 정례조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회에서는 2022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결과 21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슬기로운 통영생활'이라는 주제로 보수교육도 진행했다.

천영기 시장은 이날 직원훈시에서 먼저 겨울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욕지도, 추도, 수우도, 매물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들을 당부했다.

또,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욕지 도동, 사량 대항마을 등 4개소 선정 총사업비 350억 확보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2021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 평가를 받은 것과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대해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 2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에 긴급 난방비 30만원을 발 빠르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섬기는 진정한 위민 행정의 본보기라 평가했으며, 올 2월말에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마친 춘계 대학축구연맹전은 행사진행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행사 효과들을 잘 분석해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 관광객 수 추이를 적극 참고해서 올해는 지난해 추진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할 생각이며, 특히'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 한산대첩축제가 선정됨으로써 글로벌 축제 프로그램으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면서, 대한민국 제1호로 선정된 야간 관광도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기반을 차근차근 갖춰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3월 31일 개최될 해양수산부 주관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와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Beyond Border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3 통영국제음악제에 많은 방문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깨끗한 도시환경과 질서 있는 모습, 안전한 공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천영기 시장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10월보다 0.3%포인트 내린 1.7%로 수정한 것과 지난해 12월 우리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6%로 낮춘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올 한해는 예년보다 더욱 힘든 경제상황에 직면해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복지와 일자리, 물가 등 민생관련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윈스턴 처칠이'비관론자는 기회가 와도 위기만 보고, 낙관론자는 위기가 와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올 한해 아무리 국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현명한 낙관론자가 되기를 부탁하면서, 항상 민원인에게는 좀 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하고, 동료 직원들에게는 봄의 기운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준/기자

내가 제일 잘나가! SNS 통한 의성군 브랜드화 달성

의성군은 지난해 SNS를 운영하여 대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외적으로는 소셜아이어워드 3개 분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최우수상 수상,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전국 군부 1위(10월~12월)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구독자 수(6개 채널 평균) 15% 증가율, 콘텐츠 제작 건수 26% 증가율을 달성했다. 특히, 소셜아이어워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분야는 군부 1위를 차지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유튜브 채널 '의성TV'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최치원문화제, 탄소중립포럼, 사회적기업 상생 한마당 영상을 공유하고,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간 60건 업로드했으며, 블로그 기자단은 원고개수 19%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의성을 홍보했다.

그 결과 유튜브 구독자가 지난해 대비 22% 증가했고, 블로그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는 한국관광공사 메인 홈페이지 노출, 네이버 메인 '우리동네' 95회 노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이용자 중심의 SNS 채널 운영을 통해서 군정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양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그날의 외침처럼… 나라사랑 물결 '넘실'

영양군은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에 청기면 망미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및 보훈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3·1만세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영양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영양군이 1919년 3월 24일 청기면사무소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만세운동과 3월 25일 영양장터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펼쳐진 장소이며 김도현, 남자현, 엄순봉 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충의열사들이 배출된 고장임을 다시 한 번 군민들에게 각인시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념사를 통해"오늘의 행사를 통해 104년 전 그날처럼 3·1운동 정신으로 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포용과 상생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본다면 어려운 지역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애국심 고취와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희망찬 영양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귀농귀촌 지원 위한 신규사업 추진

보일러, 지붕 등 소규모 주택 수리비, 농가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안동시는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귀농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귀농 세대의 초기 부담경감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주택 수리비, 이사비용, 농가주택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소규모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보조 50%)까지 지원한다.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안동시 농촌지역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 시 필요한 설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75만 원(보조 100%)까지 지원된다.

세 사업 모두 안동시 외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에 가족(부부/2인 이상)이 함께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경영주)하는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는 △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 귀농 초기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00만 원(보조 80%) 지원한다.

시는 향후 귀농귀촌 실행 전 안동시에 관심이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SNS를 활용한 귀농귀촌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운영해 마을소개,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 지역기반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농촌이탈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귀농귀촌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2023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 16억6천만 원 확보

봉화청암정과 석천계곡의 주변정비 사업 등 총 27건 보수

봉화군은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총 27건, 사업비 16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봉화군은 총 110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건의 문화재가 보수되고 있다.

문화재 노후화로 인해 보수·정비 대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팀을 통해 문화재 모니터링 및 경미한 보수·정비를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보수·정비는 봉화군 문화재팀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정밀실측, 종합정비계획, 주변정비, 보수사업으로 나눠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된 27건은 보수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위원의 현장답사 및 의견을 통해 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봉화청암정과 석천계곡의 주변정비 사업 등 13건 10억 원,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봉화삼계서원의 사당 지붕보수공사 등 14건 6억6천만 원 등이 있다.

군은 다음 달부터 문화재청 및 경상북도에 설계승인을 받고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금자/기자

'영덕 자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영덕군 해안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금 제작방식인 '영덕 자염'이 우리 고유의 전통 양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6일을 기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은 소금을 만드는 방식인 '제염'을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는 전통 지식으로 인정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경상북도는 과거 바닷물을 끓여내는 전통적 소금 생산방식인 '영덕 자염'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생산해내는 해염 중심으로 소금산업이 발달했으며, 바닷물을 가마에 끓여낸 자염이 그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소금 생산방식이 태양열을 이용한 천일염으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그나마 영덕군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는 1950년대까지 진흙 등 포장을 통해 염전 형태를 구축하고 도랑을 파 바닷물을 끌어들인 다음 함수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해 왔다.

경상북도는 영덕군 지역의 이러한 고유의 소금 생산방식에 대해 전통적 지식과 문화가 담겨있다고 판단해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으며,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군의 역사·문화 그리고 지역 주민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영덕 자염'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계속하여 군내 유·무형의 문화재 발굴과 보존관리 수준의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영덕군은 지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꾸준히 추진해 2019년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고, 2021년엔 '영덕 괴시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영덕 장육사 대웅전 벽화'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엔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과 '영덕 무안박씨 희암재사'가 국가지정문화재 중 명승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올해의 경우 '영덕 자염'을 시작으로 여러 문화유산이 국가문화재나 경상북도문화재로 지정·등록될 것으로 기대돼 영덕군의 역사·문화 자원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문화/기자

경북교육청! 3월'소통·공감의 날'개최

경북교육청은 2일 본청 웅비관에서 청내 온라인 방송과 병행해 소통·공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렴 서약식,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소개, 표창장 전수 및 수여, 교육감 인사말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교육감과의 대화시간, 소통·공감 퀴즈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어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승진, 전입한 교육전문직원 등 26명(과장 1명, 장학관 3명, 장학사 17명, 파견교사 5명)에 대한 소개를 했다.

또한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해 2022년 하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포항교육지원청 김기수 장학사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실천적 인성 역량을 함양하고,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도전! 꿈 성취 인증제 운영 △행복수업, 행복교육 실천 학급(학교) 운영 △문화, 예술, 스포츠, 동아리 활동 내실화 △나라사랑 교육 강화 등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둘째, △세계 유관 교육기관과 협력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온라인 국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국제 봉사활동, 체험학습 기회 확대 △사이버독도학교 세계화 사업 등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

셋째, △타 시도 및 해외 학생 유치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늘봄학교 성공적 안착 등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후반부에는 직원들이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을 통해 교육감에게 궁금하거나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대 간 함께하는 소통·공감 퀴즈 시간에는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색다른 경험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 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강조하며 창의적인 업무 역량과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교육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사랑화폐’할인보전금 국·도비 35억원 확보!

경북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지역경제‘활짝’

청송군은 최근 청송사랑화폐의 10% 할인보전금 예산 국·도비 3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620억 규모의 청송사랑화폐를 10% 할인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향에 맞추어 국비 24억, 도비 11억원 등 총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돼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는 경북의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꾸준한 홍보와 노력을 통해 관내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가맹점을 확보했고, 관내 모든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계약해 판매 및 환전도 수월하도록 하는 등 한 해에 700억 규모의 화폐가 유통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군은 이번 국·도비 지원금 예산확보를 통해 620억 규모의 청송사랑화폐 10%할인판매와 정책수당 80억 가량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는 등 2023년 700억의 청송사랑화폐를 안정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회복과 고물가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군민 누구나 손쉽게 청송사랑화폐를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성과점검 워크숍 개최

전국 최초 4년 연속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우수 도전

경북도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경북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특구기업, 이차전지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성과점검 및 경북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배터리특구의 2022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국내외 이차전지산업의 최근 동향, 경북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및 후속과제 발굴 등 Post 배터리특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경북도는 지난해 제도개선, 기업지원, 후속사업연계, 특구 안착화 및 사업화 노력 등 세부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이를 통해 성과창출 부문은 사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부족한 부문은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보완해 전국 최초 4년 연속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성과평가 우수에 도전한다.

2019년 7월 지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사용후 배터리 핵심소재 확보 및 이차전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선도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서 4조 1634억원(MOU기준)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포항을 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배터리특구의 성과를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연계·확산하기 위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2030년 이차전지 양극재 글로벌 초격차 선도’라는 비전 아래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경북 내에서만 양극재 연간 1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양극재 설계·제조·공정 핵심기술 개발, 이차전지 전문 인재양성 및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단지 기반조성으로 광물-원료-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양극재산업 생태계를 온전히 구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기 지정 특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지침과 가이드가 나오는 대로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배터리특구는 이차전지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post 배터리특구 추가전략을 통해 경북 이차전지산업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케이메디허브 R&D 전년比 12% 증가

2022년 연구개발비 407억 원 수주하면서 양적·질적 성장

케이메디허브가 22년 수주한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12% 양적 성장했다.

연구개발비 규모의 성장과 함께 케이메디허브는 디지털헬스케어, 합성신약 등 다양한 R&D 사업들을 주도하면서 국내 기업을 견인하는 질적 성장도 하고 있다.

2022년 케이메디허브 연구개발비 수주금액은 407억 원 규모다.

이는 전년대비 12% 성장한 수치이며, 특히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탁하여 양적·질적으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해 합성신약개발 산학연계지원사업(6년, 250억 원 규모),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5년 150억 원)과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3년, 122억 원) 등을 수주했다.

이는 양진영 이사장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직접 성과를 챙기며 동기부여하고 전 직원이 합심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개발 분야에서 합성신약개발 산학연계지원사업과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합성신약개발 산학연계지원사업(6년, 250억원 규모)은 케이메디허브가 주축이 되어 대학·출연(연)의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후보물질 최적화를 지원하고, 바이오기업의 파이프라인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 지원사업(3년, 30억 원)은 대학·병원·연구소 등의 기초연구결과를 활용해 백신 및 면역증강제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을 기업에 소개하는 산학연 연계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학계의 기초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이어주는데 케이메디허브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분야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과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맡게 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5년 150억원)은 식약처 인허가가 완료된 국내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5년, 약104억원)은 케이메디허브 인프라와 병원 내 의료인이 연계해, 기업의 국산 의료기기 제품의 인허가 및 보험등재를 통해 첨단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3년, 122억 원) 수요기반 기술 서비스 지원을 통해 맞춤형 전임상, 의약 생산 지원을 하면서 의료제품의 사업화 상위 단계 진입을 지원한다.

1차년도였던 22년에는 AI기반 영상 행동학적, 병리학적 평가법을 확립하고, 학습 데이터 수집과 이미지 인식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등 AI를 의료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지원을 수행했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도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기반구축사업과 식약처 심사자 교육을 수탁해 공공연구기관으로 케이메디허브의 공공성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미래를 선도하는 의료산업 허브라는 케이메허브의 비전에 발맞춰 연구개발사업 또한 충실하게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수주한 내실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활용하면서 케이메디허브가 의료산업 기초연구와 기업 사업화 연계의 구심점으로 자리잡도록 파급력을 확장시킬 것이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윤근수/기자

포항시, ‘체험하고, 투어버스 타고, 미디어아트 보고’ 구룡포로 봄나들이 오세요!

포항시는 최근 ‘동백꽃 필 무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구룡포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3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구룡포 일원에 체험형 관광컨텐츠 개발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3월 한 달간 매주 금·토·일요일 오전 11시~오후 6시 구룡포생활문화센터(아라예술촌) 앞에서 체험·전시 공연프로그램인 ‘삼삼하게 놀자구룡’을 개최한다.

‘바다 석고 방향제 만들기’, ‘해초 천연 비누 만들기’ 등 12가지 체험 프로그램, 퓨전 국악팀 한터울의 공연프로그램, 관광객이 참여하는 우드버닝 전시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로 운영되며, 체험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고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4월 운영 목표로 한창 시범운행 중인 ‘바다 투어버스’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핵심 컨텐츠로, 호미반도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구룡포에서 호미곶 일원까지 운영된다.

태블릿을 활용해 주요 관광지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 문화, 예술이 접목된 포항에서만 즐길수 있는 관광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명소가 된 일본인가옥거리 중앙계단에는 미디어아트를 시범 상영하고 있다. 포항의 바다, 역동적인 산업현장, 아름다운 계곡 등을 미디어아트에 담을 예정이며, 4월까지 막바지 영상 보정작업을 마치고 5월 야간부터 본격 상영되면 포항 야간 포토존 명소로 빛을 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미식 관광을 대비해 △지역 특화 미식 컨텐츠 개발 및 주요 사업으로 △구룡포 홍보플랫폼(홈페이지) 제작 △일본인가옥거리 관광시설물 개선사업 △여행자플랫폼(관광객쉼터) 구축 △주민참여형 관광협의체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은 “포항 천혜의 해양자원과 구룡포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해양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룡포가 포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영양교육지원청, 제40대‘김유희 교육장’취임

제40대 김유희 교육장, 취임식 갖고 힘찬 출발

영양교육지원청은 2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제40대 김유희 교육장 취임식』행사를 개최했다.

2023년 3월 1일 자 영양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김유희 교육장은 1988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하여 안동교육지원청 및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안동 녹전초 교장,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등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교육전문가이다.

김유희 교육장은 “동료 간의 상호존중 및 화합”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힘을 키우는 영양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취임 소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매화시장 장옥 붕괴의 원인은 부실시공’ 시공사 등 행정조치 계획

울진군은 지난 2월 14일에서 15일까지 양일간 내린 폭설로 붕괴 된 매화시장 장옥과 관련하여 붕괴 원인은 시공 전반에 걸친 부실공사로, 시공 관련 업체 및 책임감리자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화시장 지붕 설치공사는 매화시장 이용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화시장 시설개선공사의 일환으로 2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 9월에 준공했다.

울진군은 울진·영덕지역건축사회와 자체조사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시공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지붕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결론을 내린 한편, 붕괴된 매화시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옥주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고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붕괴된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향후 울진군은 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매화시장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복구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경산시 2023년 1분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경산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신설안'과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 무료화 안' 2가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고 고물가 시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같은 달 대비 5.4% 상승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산시는 버스와 택시요금, 상수도, 종량제봉투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병철 경제환경국장은 “2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및 해외정세 불안으로 고물가가 지속되어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산시에서는 공공요금 동결 및 부과유예, 시 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완주군과 함께 성공위한 공감행정 추진

유희태 군수, 김관영 도지사 완주 방문에 "행정수요 폭증, 자치조직권 확대 필요" 건의

완주군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더 특별한 전북시대, 완주군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도정과 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2일 오전 완주군을 방문하고 1일 명예 완주군수로 위촉돼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청원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완주군은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어느 때보다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만경강 기적을 이루기 위해 주민 참여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1조3천억 원 규모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환경부 주관 400억 원 규모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완주군은 기업유치와 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인 결가 코웰패션 등 굵직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고, 웅치전적지의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승격이 됐다"며 "더 특별한 전북 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청원과의 만남에서 "완주군이 한류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서고 있으며,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도 빼놓을 수 없다"며 "이제 완주는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어 완주의 도약을 전북성장으로 확산하는 게 과제인 만큼 함께 혁신하고 함께 도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시 승격 특례 부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특례 부여,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 사업, 2차 공공기관 전북 혁신도시 우선 배치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완주군은 인구증가 등 도시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완주시 승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상 특례 규정 명시가 필요하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제도 개선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특례부여가 요청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후 완주 떡메마을과 삼례문화예술촌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갖는 등 지역민과 긴밀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떡메마을 방문에서 "근로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애정과 힘을 쏟아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직접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도민과의 대화에서 "완주군은 전북에서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며 "지역소멸의 대안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팜 지원 등과 연계해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유입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꽃피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만물이 움트는 생명의 계절에 김관영 지사께서 완주군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정의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완주군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2023익산방문의 해', 청결·안전·경관으로 관광경쟁력 강화

관광지 청결·안전·환경 업그레이드로'머물고 싶은 관광도시'조성

익산시는'2023 익산방문의 해'성공을 위해 청결·안전·경관을 강화하며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봄철 국내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주요 관광지 주변 환경을 더욱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머물고 싶은 관광 환경'조성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주요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 및 관광지의 환경정비와 봄꽃 경관조성에 나섰다.

우선 "익산, 아름다운 순례길"역시 안내판을 재정비하여 순례객 맞이 준비를 하는 등 관광안내도가 변화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리 안내정보를 재정비한다.

또한'사진 속 프레임에 비추는 자연경관'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등 환경정비를 더욱 강화한다. 사진 촬영 시 인물과 핵심 관광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인근 숲과 잔디 등까지 범위를 넓혀 청결한 환경 조성에 신경쓰고 있다.

익산 사계절 관광지이며 고즈넉한 산책길로 알려진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솎아내기 작업을 통하여 어디에서 사진을 찍든 쭉쭉 뻗은 멋진 대나무숲과 함께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미륵사지에서 차로 5분거리에 있어, 미륵사지를 들리는 관광객이라면 시간을 내어 가볼 만 한 사진찍기 좋은 장소이다.

특히 캠핑족들에게 인기있는 웅포관광지는 시원하게 뻗은 금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조경시설과 자연녹지구역을 환경 정비해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 중이다.웅포관광지는 웅포곰개나루명소화 사업이 오는 8월 완료되면 야간 관광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볼거리 확대를 위해 봄꽃 경관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함라한옥체험단지 뒤편 동산에 약 600㎡ 규모의 수레국화, 수선화 꽃동산을 마련했다. 웅포캠핑장 주변 금강정 진입로 양쪽에는 꽃길을 조성해 화사한 봄기운을 전하는 관광 요소를 다양화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요 관광지 봄맞이 청결 운동을 통한 관광지 쾌적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힐링의 도시 익산으로 여행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익산의 관광지 곳곳을 말끔히 단장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군산시, 고군산군도 활성화 위해 14개 부서가 모였다.

고군산군도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의 10여개 부서가 모였다.

시는 지난 2월 24일 고군산군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된 행정실무협의체의 2023년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이 총괄 주재하고, 사업팀으로 항만해양과, 수산식품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등 9개 부서와, 지원팀으로는 기획예산과, 새만금에너지과, 위생행정과, 자원순환과, 옥도면 등 5개 부서의 실무계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첫 회의 후 부서별 사업추진 진행상황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항만해양과)',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항만해양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관광진흥과)' 등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별로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소통을 추진했다.

현안으로 고군산군도 환경정화를 위한 대책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쓰레기 처리를 소관하는 부서의 사업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유지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결활동이 절실한 만큼 주민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섬지역 환경정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향후 협의체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시는 보다 내실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 문화·관광·도시계획·교통·지질 분야의 전문가 9인을 행정실무협의체 민간자문단으로 위촉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체를 통해 고군산군도의 육지 지역 위주의 관광을 섬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섬지역 편익시설 조성과 주민 편익시설 부서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향후 고군산군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순창군, 전통 장담그기 가족과 함께 직접 담궈보세요~~~

장독대 분양 및 장담그기 체험 참가자 모집

고추장, 된장 등 장류 산업의 메카인 순창군이 지역의 오랜 무형의 생활유산인 장담그기를 계승하기 위한'장독대 분양 및 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5일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오랜 시간 순창의 전통장을 지켜온 장류 제조 기능인 10명과 함께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장담금기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다.

특히'장독대 분양 행사'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객이 직접 만든 장을 기능인이 장독대에서 섬세하게 관리함은 물론 숙성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에 각 가정으로 배송해 주는 순창만의 대표 체험관광 프로그램이다.

장독대 분양은 장담그기 체험을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

으며, 장독대 분양신청 시 구좌 당 10만원으로 전통 된장 2kg, 찹쌀 고추장 2kg, 간장 1.8L이 포함된다.

또한, 장담그기 체험객은 1인당 체험비 1만원을 들여 사전예약을 하면 전통장 담그기 체험 참여가 가능하다.

'2023년 장독대 분양 및 장담그기 행사'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오는 17일까지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석/기자

부안군, 제2기 먹거리위원회 출범...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속 확산 도모

부안군은 지난 2일 '제2기 부안군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먹거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인 위원회는 농업인, 소비자, 군의원, 공무원 등 3개분과 20명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부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먹거리 정책을 심의. 자문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부안형 푸드플랜 추진현황 및 부안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기타 논의를 통해서는, 먹거리 가치를 재인식하고 군민이 지향하는 먹거리 가치 실현을 위한 위원 역할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군민 모두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부안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20.9월)하고,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제정(20.12월), '부안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개장('21.6.4.) 등 부안의 미래 100년 먹거리 개발을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2024년까지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건립을 비롯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수립된 정책들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자족도시 실현의 비전을 실현할 방침이다.

김현태/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주첨단벤처단지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기업지원 공동기반시설 견학하고, 스마트제조기술 실습 과정도 참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주시 팔복동 첨단벤처단지를 방문해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어갈 유망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첨단벤처단지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비아를 비롯한 5개의 첨단벤처단지 입주기업, (유)다시 등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3개사 등 총 8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현장에서 실감하는 만큼 어려운 금융여건 개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저금리 운영과 이차보전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운용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이후에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혁신창업허브에 구축된 시제품 제작 지원시설을 둘러보고, 중소벤처진흥공단에

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배움터의 스마트제조기술 실습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에는 기업입주공간인 '전주혁신창업허브'를 비롯, 스마트공장배움터, 드론 메이커스페이스공간(윙윙-스테이션), 복합소재뿌리기술센터,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등 기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첨단산업 관련 중소기업 56개 사가 입주해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과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다.

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첨단벤처단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제조 창업과 혁신성장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어갈 거점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에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조성과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남원시, 행정안전부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이번 평가는 그간 지자체 혁신평가 지표 중 하나로 평가했으나 단독으로 시행된 첫 평가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남원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체감도 등을 종합 심사했다.

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관심도를 높여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해 왔다.

아울러 동일 구간 내 상수관로 개선공사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중복구간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 중복굴착 방지 및 272백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며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2년 첫 시행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남원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장흥군 전남 천연자원연구센터·한약자원연구센터 공동연구 업무협약

전남도 국내 천연물산업 전주기 표준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기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가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와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천연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성 소재의 원재료, 원료표준화 정보교류 및 상호 공동 연구, 전문인력 교류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는 한약자원 표준화, 한약자원 안전성 확보, 한약자원 유효성 근거확보, 한약자원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약자원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한약자원 전주기 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한약자원 확보와 활용에 주력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물 원재료 및 원료 소재의 표준화 연구 공동수행, 산업화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공동활용, 정보교류 및 연구활동 상호지원 등에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천연물 산업 표준화와 규격화된 원재료 확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라남도에 'K-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를 올해 국가사업으로 유치하여 국내 천연물 산업의 대표주자 및 필수 통과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나주시, 청렴시민감사관 9명 위촉 … 시정 감시기능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렴·투명한 시정 구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5기 청렴시민감사관' 9명을 위촉했다.

나주시는 2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제5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목·건축·도시계획·환경·회계·세무 등 전문분야와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 등 일반분야로 나누어 지난해 11월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전문분야 5명, 일반분야 4명 등 총 9명을 이날 위촉했다.

시민감사관은 '종합·부분 감사 참여 또는 자문'을 비롯해 '일상 시민 불편사항', '공직자 청렴도 제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관행' 등에 대한 시정 건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과 더불어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협력하는 외부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강영구 부시장은 위촉식에 이은 간담회를 통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감사관들의 활발한 활동을 요청했다.

강 부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우리 시 감사행정 발전과 청렴도 회복, 시민의 권익보호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기대한다"며 "부패 없고 청렴한 나주 실현을 위한 민간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진도개 Dog스포츠 4일부터 시작

진도군이 진도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3월 4일 오전 11시부터 Dog스포츠를 시작한다.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주제로 3월부터 12월까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진도개 Dog스포츠와 학습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Dog스포츠는 줄넘기와 그림그리기 등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교감 프로그램과 사람과 진도개가 협동해서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어질리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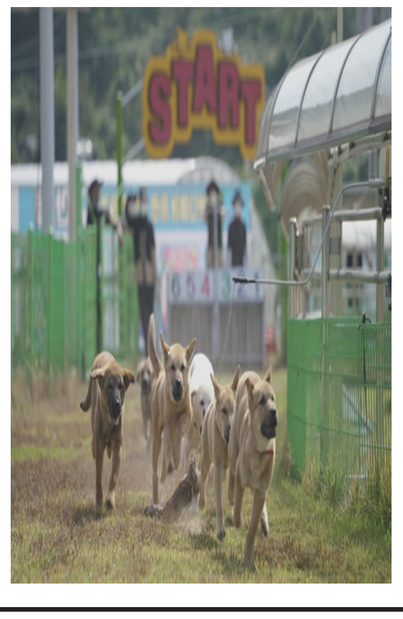
진도개와 함께 협동하고 소통하는 Dog스포츠 프로그램은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와 깊게 교감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og스포츠 프로그램은 평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 15분씩 두 차례, 주말은 오전 11시부터 40분 동안 한 차례 운영된다.

특히 진도개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 썰매장, 진돌이 놀이터, 진도개의 역사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진도개 홍보관 등을 운영하여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연간 20만명이 방문하는 진도개테마파크에 진도개 콘텐츠를 활용, 진도개 홍보와 이미지 제고,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 전남' 실현 속도

전국 최초 중압직류 대용량 중압직류 전력공급 통전식

전라남도는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이자 세계 3번째로 중압직류(MVDC) 전력 전송 실증 기반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 전남'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일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관.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중압직류 전력공급 통전식'을 개최했다.

2019년 12월 중기부가 지정한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중압직류 전력전송 실증'을 통해 중압직류에 대한 규제 완화, 기술 표준화, 인증 기반 마련 등 직류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 부각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따라 직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날 통전식이 이뤄져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중압직류 전력전송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340억 원을 투입해 중압직류와 저압직류 스테이션, 분산전원(태양광) 1.3㎿ 등 실증 인프라를 갖추고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직류 전송 용량 확대, 선로 설치 높이 완화 등 실증에 나서게 된다.

중압직류 스테이션은 국내 최초이고, 세계적으로는 독일과 영국 다음 세 번째로 구축한 실증설비 핵심 인프라다.

전남도는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교류와 직류를 함께 운영하는 배전망 실증과 특고압 직류배전용 신뢰성 기술 개발 등 총 603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직류 관련 정부 공모사업도 유치할 방침이다.

또 중기부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사업'도 유치해 ▲특구 실증 인프라 고도화 ▲국제 표준 제정 ▲해외 인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직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등 직류 기반 산업 확대 기조에 따라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전남도가 추진하는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전남을 직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영암군, "그날의 태극 정신 마음에 담았다"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영암군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영암군 3·1 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영암공원 3·1운동 기념비 광장과 군서면 도기박물관 내 3·1운동 기념탑 앞에서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애국단체 후손과 보훈단체회원, 관내기관사회단체, 주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만세운동 및 그날의 애환을 담은 재연행사가 진행됐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은 일제의 압제와 불의에 항거하고 민족혼으로 모두가 하나됐던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기념사에서 "3·1운동은 겨레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힘을 모은 우리 민족의 저력이자 우리 후손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야 할 민족정신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다시 되새겨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 더 나은 대한민국과 영암군을 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현/기자

구례군, "구례올래?(농촌에서 살아보기)"(1기) 참가자 모집

최대 3개월간 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참가자 6명 모집

전남 구례군은 오는 3월 19일까지'2023년 구례올래? (농촌에서 살아보기)'1기 참가자 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례올래?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3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지역 탐색, 농촌체험, 지역민과의 교류 등 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구례올래? 1기 프로그램은 4월부터 7월까지 마산면에 위치한 지리산효장수마을에서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참여를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으로 동(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하며 연접 시군구 주민은 제외된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농촌에서 살아보기'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김순호 군수는"귀농·귀촌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므로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며"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완도군, 한류(韓流) 확산에 앞장선 21세기 장보고를 찾습니다!

완도군과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은 한류(韓流) 확산에 앞장 선 재외동포 경제인(韓商)을 대상으로 '제8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헌정자를 공모한다.

'장한상'은 해외에 이주,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경제 및 문화 영토 확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선 한상(韓商)을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인증하는 상(賞)이다.

모집 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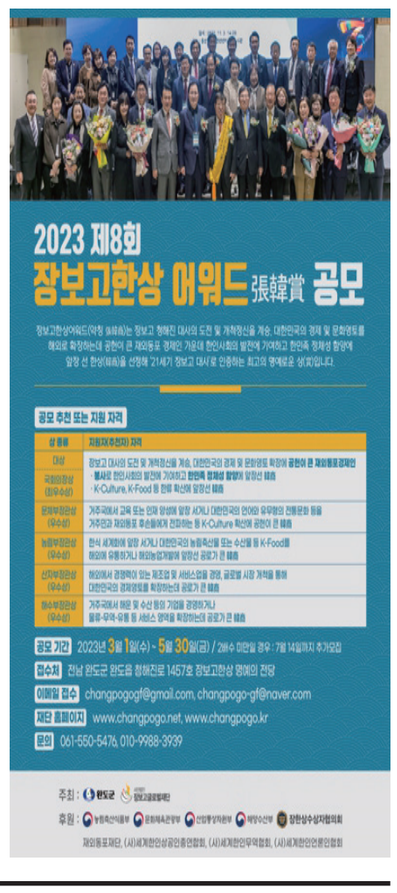
수상은 헌정자(대상)과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해양수상부장관상 등 6개 부문이다.

응모 방법은 장보고글로벌재단 홈페이지에서 '장보고한상 어워드 후보자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창업 성공 스토리를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에 전시하며 2박 3일 완도 투어 및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김덕룡 이사장은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개관과 더불어 제2회 장한상 수상자 창업 성공 스토리 감상문 공모전 등이 개최되면 장한상(賞)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의 후손들에게 조상과 고향을 찾아주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충남도, 전국 최상위 수준 양식산업 경쟁력 더 높인다

도, 2023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218억 원 투입 24개 사업 추진

충남도는 전국 최상위 수준인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2023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19년-2023년)에 따라 매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식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미래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24개 사업에 218억 원을 투입한다.

양식어업 생산량 목표는 전년 6만 173톤 대비 5% 증가한 6만 3000톤으로, 지난해 양식어업 생산량은 전국 226만 7827톤 대비 2.7%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 및 지원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할 계획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은 4대 전략 7개 분야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종자산업 육성 △어장환경 관리 △양식생산 관리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안전성 강화 및 기술보급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이다.

도는 우선, 대표 수산종자 품종 개발 및 보급, 종자생산 경영체의 규모화, 새로운 기술개발 등 산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삼, 김 등은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지원해 고품질 수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산 어종·해조류의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 및 양식기술 개발에 나선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양식품종으로는 고수온 내성 바지락, 홍가리비(신규품종), 키조개 양식 가능성을 시험한다.

환경관리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 대응, 어장 노후화 관리, 양식어장 정화·정비로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생산관리는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안전관리 강화, 자원조성 및 양식기자재 지원으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스마트 양식 활성화,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등 미래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식어장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식 생태계 마련 및 양식산업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정책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여행이 버킷 리스트 '호반관광도시' 단양

여행 마니아들이 버킷 리스트로 기록하는 명소로 호반관광도시 단양이 주목받고 있다.

단양은 패러글라이딩과 짚 와이어, 클레이사격 등 이색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다 풍광도 아름다워 대한민국 관광1번지로 이름나 있다.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말한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자유로운 새처럼 하늘을 비행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패러글라이딩의 메카 단양을 향하고 있다.

단양읍 양방산과 가곡면 두산에는 전국에 소문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고 단양읍 강변로를 따라 패러글라이딩 전문 업체가 줄이어 영업하고 있다.

비행복과 안전모를 착용한 뒤에 활공장을 도약하면 몸으로 전해오는 하늘의 자유로움은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단양 풍광은 백두대간의 울창한 산림과 단양호반의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져 곳곳에서 천혜의 비경을 뽐낸다.

패러글라이딩은 전문가만 즐길 수 있는 극한의 스포츠였지만 최근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변모하고 있다.

18세기 유럽의 귀족이 즐겼다던 클레이 사격도 단양에서는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클레이 사격은 비둘기를 날려 총으로 맞히는 게임에서 유래됐는데 현대에 와서는 접시를 사용해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재미가 있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클레이사격장은 해발 500m 고지인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야외에서 위치하면서 단양시내에서 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0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예로부터 제2의 해금강이라 불리던 단양강은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선상유람으로 유명하다.

단성면 장회나루와 도담삼봉에서는 선상유람을 할 수 있는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라며 "봄나들이는 마음속에서만 품어왔던 버킷 리스트가 있는 단양을 추천 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전지훈련의 메카, 스포츠는 제천에서!

▶ Always-Anywhere! 전지훈련 최적지 제천

3도(충북, 강원, 경북)의 접경지역이며 한반도 중부내륙권 중심지에 위치한 제천시는 편리한 교통, 충분한 숙박시설, 건강한 먹거리를 자랑한다. 도심권 게스트 하우스 및 시내.외 숙박시설 400여개소가 있다. 제천시에서 재배·생산되는 우수 약초를 주재료로 건강, 맛, 멋이 어우러진 먹거리 등이 풍부하다. 아름다운 산과 비단 같은 풍광의 '내륙의 바다, 청풍호'가 펼쳐져 있는 관광도시 제천시는 지속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종목별 운동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언제(Always)-어디서든(Anywhere) 전지훈련의 최적지'이다.

제천시의 스포츠 인프라는 권역별 스포츠 클러스트 조성에 따라 총 4개 권역이 특색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시내 접근이 용이한 동부권역(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어울림체육센터, 롤러스포츠경기장) △축구 클러스트 서부권역(봉양축구캠프, 제천축구센터) △농촌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남부권역(국제하키장, 중전야구장, 중전파크골프장) △스포츠 인프라 집중 조성 북부권역(국민체육센터, 근린형체육관, 송학야구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수 인프라와 최적의 입지로 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개최 최적지는 역시! 제천시가 최고이다.

제천시는 고암동 일원에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명품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파크골프장 36홀, 클럽하우스,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체류형 스포츠 및 관광 시설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제천시에는 45개팀 724명이 전지훈련 목적으로 방문했다. 올해 1~2월 두 달만에 19개팀 224명이 제천을 다녀갔다. 타지자체에서 제천시로 벤치마킹을 오거나 전지훈련 관련 문의가 쏟아지는 등 방문팀들은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관심이 증대된 배경에는 제천시-제천시체육회-제천서울병원 간 맺은 상생협약이 있다. 작년 12월, 제천시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역체육인 복리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으로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 목적으로 제천을 방문해 부상을 입은 선수에 대한 의료비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방문 선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제천시의 섬세한 스포츠마케팅이 선수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감을 제공하는 데 크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1일 5천명이 체류하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향후 국제.국내 대회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제천시가 스포츠 메카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제천시체육회 등 체육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협업해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동해시, 지역관광 추진조직 도내 유일 2년 연속 선정 쾌거

동해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지원' 사업자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 1단계(1년~2년차) 12곳과 2단계(3년차) 3곳, 4년차 1곳, 관광거점도시 5곳을 공모사업자로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동해시(1단계)와 평창군(2단계)이 각각 선정됐으며, 2년 연속 선정된 곳은 도내에서 동해시가 유일하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지역 주민, 사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광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5천만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함에 따라, 지방비 등 총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6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워케이션 조성 등 3개의 필수사업과 지난해 조성된 동해시 여행자플랫폼 연필뮤지엄(심!봤다), 삼화동 거북당(느리게걷기)를 활용한 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시는 동호、묵호、망상、삼화동의 주민협의체와 여행, 숙박, 음식, 교통 등 관광 관련기관을 비롯하여 연필뮤지엄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14개 기관 및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동해 DMO 협의체 조직을 올해 20개 협의체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심규언 동해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DMO 육성지원 1년차 사업에서 거버넌스 조직 육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년차에 선정되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의 민간 관광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원주시, 지역경제 활로 개척 위해 상반기 5,309억 원 신속집행

원주시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목표율을 설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55.7%로 설정하고 재정 집행 대상액 9,518억 원 중 5,309억 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 체감이 높은 소비 투자 부문 1분기 목표액을 1,225억 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신속집행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원 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사업, 구곡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긴급입찰, 입찰공고 기간 단축, 계약 관련 심사 기간 단축, 수의계약 확대, 선급금 집행 활성화 등 지방계약제도 한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 집행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투자사업 집행 및 장애요인 해소 등 재정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보조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공모사업자 선정 89건 34억 원에 해당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1차례 재정계획 심의회를 통해 재정심사 16건 693억 원 규모의 투자심사 건을 의결했다.

또, 행정절차에 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 정기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연 8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연 4회)를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해 적기에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둔화로 빠른 서민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영동군, 명품 영동 포도 바다 건너 제주도민 입맛 공략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영동 샤인머스켓 판촉 행사, 판로 확대 주력

과일의 고장, 충북 영동군의 명품 포도가 바다 건너 제주도로 활동 범위를 넓힌다.

2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날 2일부터 5일까지 롯데마트 제주점에서 영동 샤인머스켓 특별판매전 행사를 연다.

소백산맥 추풍령 자락에 위치한 영동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특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전국 최고의 과수 생산지이며, 그 중에서도 '포도'는 단연 으뜸 과일로 통한다.

이날 선보인 영동의 대표 포도품종 '샤인머스켓'은 탐스러운 빛깔과 높은 당도를 자랑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샤인머스켓의 명품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영동 농특산물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이번 판촉행사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투자협약을 통해 영동군과 인연을 맺은 제주도 신선과일류 유통·도매업체인 진시황영농조합법인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군은 이번 판촉행사에서 샤인머스켓 1.5kg 상품을 준비해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도 동행해 샤인머스켓 판촉활동을 펼쳤다.

과일의 고장에서 난 최고 품질의 포도와 제주도민들에게는 생소한 영동 알리기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전국 최고라는 브랜드 네임에 더해 전략적 판촉활동, 박스당 7,000원 정도 할인판매까지 겸해 제주도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먹거리로 통용되는 영동포도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후 현지 의견수렴과 성향 파악, 유통트렌드 분석 등으로 지속적인 판촉과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지역농가들의 판로확보와 신규고객 확보에 주력하며, 영동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촌 활력 증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 공헌 가치 실현과 농촌지역의 농산물 판로확대를 통해 도시·농촌 상생발전을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가중된 농촌의 어려움을 덜고, 도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건강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옥천군, 민선8기 공약사업'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확대 지원

충북 옥천군은 군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

군은 작년 12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했다.

올해부터 관외에서 군으로 전입한 충북도립대 학생은 전입 6개월이 지나면'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100만원과 '개인 전입축하금' 20만원을 포함해 전입축하금 총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추가로 전입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10만원씩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축하금은 최대 150만원까지다.

군은 2일 충북도립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에 참여해 축하금을 비롯한 청년 월세·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등 옥천군 인구시책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옥천에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가오는 3월 9일 공무원들이 직접 도립대를 찾아 전입신고를 받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운영을 안내했다.

이대정 성장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전입학생 축하금과 청년 월세·전세대출금 이자지원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좀 더 여유 있는 학교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경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국 서부지역 공동 시장개척 나서

충칭(重慶), 청두(成都), 쿤밍(昆明) 현지서 판촉활동 예정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서부지역 충칭·청두·쿤밍을 대상으로 신규 시장개척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경북도 상해대표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칭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해외에서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국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충칭시 등 현지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한 △판촉 활동 △유망 전시회 참여 △중심상권 입점 및 왕홍 마케팅 △바이어 상품 설명회 △하반기 중 현지 방문을 통한 현지 바이어 1:1 상담 등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도내 11개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해 프레쉬벨 등 3개사가 현지 유통망과 2년간 약 3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15개 기업을 모집해 미개척 잠재시장인 중국 서부지역에 한국상품을 소개하고 국가 간 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2023 경상북도 충칭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국가적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를 비롯해 수출이 급감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중국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도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사업을 추진해 중국 내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광주시 동구, 첨단 ICT 기반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본격화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아트패스' 시스템 구축 등

광주 동구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실현을 위한 통합플랫폼 제작의 첫걸음인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동구는 지난달 27일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향후 추진하게 될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과 아트패스 상품 판매·운영계획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동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여행 관광자원을 활용한 모바일(앱)', '아트패스 개발·운영' 등이다. 이중 아트패스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카페·맛집 정보·예약 ▲모빌리티(기차·렌터카 등) 예약·결제 시스템 ▲주차 ▲짐 배송 ▲여행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동구는 지난달 수행사업자를 선정하고 총사업비 22억 원(국·시비 포함)을 투입해 충장축제가 개최되는 오는 10월 전에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말을 목표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 일상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흐름에 따라 동구만이 가진 관광자원과 스마트 기술을 융합해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앞으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이 구축·완료되면 광주 전역으로 확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여행을 즐기는 '일상이 예술이 되는 활력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2023 예천군 농업기계 박람회' 성료… 5천명 방문 북적북적

50여종 첨단 농업기계 선보여 눈길, 관람객들로 인산인해

예천군이 지난 28일 한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한 '2023 예천군 농업기계 박람회'에 5천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는 50여종의 첨단 농업기계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고 기계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업체별 주력 기종 특징, 장단점을 현장에서 비교할 수 있어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발 디딜 틈 없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현장 상담은 물론 기계를 구매한 농가에는 가격을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대행사로 진행된 기계 시연회는 풍성한 볼거리로 호응이 높았다.

이외에도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농촌인력지원 홍보관을 운영해 사전 예약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행사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도 마련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처음 기획한 이번 농업기계 박람회에 농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황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확대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지역기업 참가지원

대구시는 2023년 2월 27일(월)부터 3월 2일(목)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공동관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스페인)는 CES(세계가전전시회, 미국), IFA(국제소비자가전박람회, 독일)와 함께 세계 3대 IT전시회로 꼽히는 IT 종합 전시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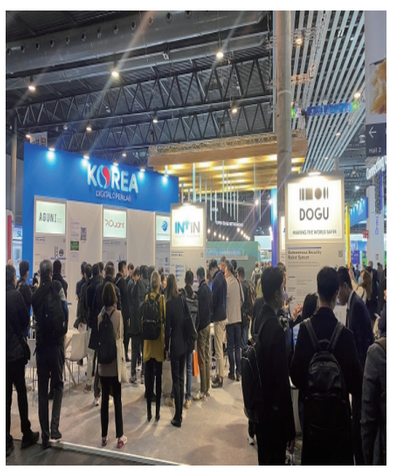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인해 축소된 지난 3년간의 공백을 깨고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모바일 산업 중심의 전시회로 5세대 네트워크 기술 가속화(5G Acceleration), 현실 이상의 현실+(Reality+), 개방형 네트워크 오픈넷(OpenNet), 디지털 금융서비스 핀테크(Fintech), 디지털의 일상화(Digital Everything) 등의 주제로 개최됐으며,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8회째(2020년 MWC는 코로나로인한 미개최) 공동관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MWC 디지털 오픈랩 공동관에는 지역 기업인 (주)인트인(대표 김지훈)의 '스마트 간편 배란테스트기 및 모니터링 플랫폼' 및 '멀티 호흡 진단 치료 시스템'을, (주)지엔에스모바일언스(대표 박동권)의 '레저용 위성자동추적 안테나 시스템', (주)우경정보기술(대표 박윤하)는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등을 선보여 해외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총 상담 104건, 상담 금액 약 790만 불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전시회 기간에 대구시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해 해외 IT 산업 동향을 파악했고, 향후 MWC 공동관 운영에 대해 협의했으며, 참여한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이날 공동관을 참관한 류동현 대구시 AI블록체인과장은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충남 광업·제조업 종사자 등 증가세

충남도는 도내 광업·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 등 주요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1개월 이상 조업(생산) 실적이 있고,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B 광업', 'C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등 13개이다.

도가 발표한 '2022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통계청이 분류한 29개 업종 중 도내 광업·제조업 비율은 각각 0.5%, 99.5%로 제조업이 중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체 수는 4693개로 2020년(4523개)에 비해서 170개(3.8%), 종사자 수는 26만 5943명으로 2020년(26만 2967명)에 비해서 2976명(1.1%) 증가했다.

출하액은 221조 3832억 원으로 2020년(186조 7455억 원)에 비해서 3조 4637억원(32.5%), 부가가치는 7조 2353억 원으로 2020년(61조 7938억 원)에 비해서 1조 559억원(17.1%) 증가했다.

이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업체의 종사자수(15.6%⬆), 출하액(19.6%⬆), 부가가치(24.9%⬆)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체당 출하액은 전년대비 14.3%(59억 원) 늘어난 472억 원,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2.8%(18억 원) 늘어난 154억 원으로 모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계장비 4.7%(30개), 고무·플라스틱 5.8%(24개),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전자·통신 3.1%(1237명), 전기장비 7.1%(1159명) 늘었다.

출하액 기준은 석유정제 57.6%(9조 840억 원), 화학제품 39.7%(8조 8875억 원), 부가가치 기준 석유정제 75.5%(2조6540억 원), 화학제품 41.8%(2조2186억 원)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타기계 및 장비 업체가 666개(14.2%)로 가장 많았으며, 종사자 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가 4만 1418명(15.6%)으로 가장 많았다.

출하액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등 통신장비 업체(43조원, 19.6%), 부가가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등 통신장비 업체(18조원, 24.9%)가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군별로 제조업은 사업체 수 기준 천안이 1436개(30.8%)로 가장 많았고, 아산은 종사자(8만 8267명, 33.3%), 출하액(72조 6881억 원, 32.9%), 부가가치(28조 2454억 원, 39.0%) 분야에서 가장 높았다.

광업은 아산, 보령이 사업체(각각 5개, 19.0%) 및 종사자 수(각각 87명, 14.1%)에서 가장 많았으며, 출하액 및 부가가치는 아산이 각각 406억 원(17.3%), 319억 원(19.2%)으로 가장 높았다. 도 데이터담당관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정책과 등 관련 부서 및 민간에서 도내 주요산업인 제조업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과학적 경제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고 다양한 산업 연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GH,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 산업시설용지 공급

기존 블록별 단일 업종에서 4개~6개 복수 업종 허용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13필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블록별 하나의 업종만 허용됐던 기존과 달리 평택포승(BIX)지구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고시를 통해 블록별 4개~6개의 복수 업종이 허용된다.

허용업종은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필지별 복수 업종 허용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급면적은 총 102,314㎡ 규모이며, 필지별 최소 2,650.2㎡에서 최대 12,102.8㎡까지이다.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475,219원/㎡이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에도 용이하다. 주변 시세 대비 20% 가량 낮은 공급가격 또한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 중 하나다.

한편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 지구로, GH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총 면적 204만㎡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총 78만㎡, 물류시설용지 55만㎡를 비롯해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준공되어 토지 대금 완납 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분양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접수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조혜영/기자

강원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로 난방비 폭탄 극복한다!

강원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3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확대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비와 함께 도비, 시군비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7,908가구에 총사업비 1,672억원 규모의 설치비를 지원했고, 2023년 국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3월)로 확정되며 예산 전액 소진 시까지 지원 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난방비 폭탄'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개인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신청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강원도는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2,500여 가구 대상 지원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의 2배 규모인 약 5,000여 가구 대상으로 확대 지원 할 예정이다.

모든 예산 소진 시 총 329억원 규모로 (추가 도비) 지원한다.

설치비용은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3㎾기준 약 530만원, 자부담액은 약 153만원이며, 가구당 월 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연간 약 1.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추진 계획 등은 산업통산자원부의 사업 공고(3월) 후 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가운데,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법도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확대가 도민들의 민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다" 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대전시·하나은행·하나캐피탈, 일류경제도시 조성 협력한다.

대전시는 2일 대전시청에서 ㈜하나은행, 하나캐피탈(주)과 '일류 경제도시대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시 지방세입금을 확대하고, 시 금고인 하나은행의 역할 강화 및 대전시 주관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은 이장우 대전시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박승오 하나캐피탈 대표이사가 서명했으며, 이성진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이동열 대전세종영업본부 지역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따라 하나캐피탈은 대전시 지방세입금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하나은행은 대규모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여 시 금고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은 ▲ 일류 경제도시 대전 만들기 상호협력 ▲ 지방세입금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적극 지원 ▲ 대전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드는데 적극 협력 등을 협력과제로 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금융울 선도하는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와 하나은행 그리고 하나캐피탈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대전 시민들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김원호/기자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이 지난 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상으로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노력과 옴부즈만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순희 시민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단 한 분의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과 시민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선 태종 임금이 신문고를 설치한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고충 민원 해결 등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시행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 이후 약 2년 동안 고충 민원 201건을 접수해 시정 권고 2건, 의견표명 19건, 상담종결(조정·중재 포함) 171건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 제10회 한반도통일공헌대상 수상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달 28일 '제10회 한반도통일공헌대상(행정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주최·주관하는 한반도통일공헌대상은 2013년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정치, 행정, 외교안보, 국제, 경제산업, 종교, 언론, 교육, 시민사회, 의료복지, 문화예술 등에서 한반도 통일에 공헌한 분들을 선정해 시상하며, 김 시장은 행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한반도통일공헌대상 수상에 감사드리며, 파주시가 평화의 중심도시로서 평화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기원하기 위해 정전협정 70주년 맞이 기획전시 및 포럼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3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이상호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상호 교수가 차세대 수처리 및 담수화 기술을 비롯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선도적인 수자원 기술 개발에 앞장서 물 부족 위기 극복과 수출산업화에 이바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담수화 기술인 막증발 공정은 해수담수화 뿐 아니라 산업폐수 처리에도 활용 가능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 받았지만, 막모듈과 공정 설계 기술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상호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막모듈 해석 및 설계 최적화, 중공사 모듈 기반 막증발 공정 설계기술 개발, 막오염 및 스케일 제거를 위한 전처리 및 물리적 막세정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플럭스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모듈 설계기술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공정설계 최적화 기술을 비롯해 플랜트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개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 300 m3/일 규모의 막증발 실증플랜트를 설계·제작·운영하여, 상용화 기반을 구축했다. 막증발 기술 관련 연구내용은 국제학술지 담수화(Desalination)에 2020년 9월과 2021년 11월에 게재됐다.

또한 신개념의 해상이동형 담수화 플랜트(담수화 선박) 개발을 추진해 2022년 2월 하루 300 m3 규모의 세계 최초 자항식 담수화 선박 제작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는 시범운영을 통해 가뭄에 시달리는 전남 소안도의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원천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과 실증화에 기여했다.

더불어 도시 물공급-물순환 연계 융·복합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을 통해 도시 내 물공급 시설과 물관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물 이용과 관리비용 10% 절감에 공헌했다.

성지아/기자

전남도, 수출상·성실 모범납세자 시상

수출 기업 7개사·유공자 6명과 납세의무 성실 이행 114명

전라남도는 2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3월 정례조회에서 수출 유공자와 모범납세자를 시상했다.

제18회 전남도 수출상 수상자는 수출기업 7개사와 수출 유공자 6명이다. 전남도 수출상은 수출 확대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그 성과를 널리 공유해 기업인의 수출 의욕 고취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기업 대상은 나주시에서 터보블로워를 제조하는 ㈜남원터보원 이병학 대표가 수상했다. 이 업체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1천300만 달러 수출액을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수출기업 우수상은 튀김식품으로 아마존 전남브랜드관과 코스트코에 납품해 전년보다 208% 증가한 1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여수 ㈜아라움, 변압기 제품 개발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한 4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나주 동우전기(주)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화순 소재 다스코(주), 강진 소재 ㈜예원, 완도 소재 섬전복영어조합법인과 완도맘영어조합법인이 장려상을 탔다.

수출 유공자 부문에선 멜론을 수출하는 곡성 대신영농조합법인 송평강 과장, 모듬해초를 수출하는 (유)완도세계로수산 최희연 주임 등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또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이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114명을 시상했다.

모범납세자는 개인 87명, 법인 27명으로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추천한 11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시상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 대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전남지역 유료 공용주차장 73곳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있다.

전남도는 대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해명/기자

동진정공㈜ 이호길 대표, 3월 김해시 자랑스러운 CEO상 수상

김해시는 2일 동진정공㈜ 이호길 대표에게 '3월 김해시 자랑스러운 CEO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초 정례조회 때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 대표에게 자랑스러운 CEO상을 수여하고 있다.

진영읍에 위치한 동진정공㈜은 1976년 창립, 와이퍼 모터, 유압실린더 등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상용차 부품 국산화와 동시에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국내외 굴지의 자동차 기업에 납품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호길 대표는 2001년 대표 취임 이후 품질 개선과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으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해외법인 설립과 판로 네트워크 구축, 국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 참가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1년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진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을 맡아 농공단지 내 상·하수도 환경개선 사업 추진, 깨끗한 공단 조성 등에 앞장서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시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CEO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으로 사업을 성장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호길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의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시흥월곶포구축제’, 2023 경기관광축제 선정...도비 1억 확보

시흥시는 낙조가 아름다운 월곶포구에서 매년 개최되는 ‘시흥월곶포구축제’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경기관광축제에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내 35개 축제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2023 경기관광축제는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지역주민 참여도,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사항과 축제의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총 23개 축제를 등급별로 선정했다.

월곶포구발전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관광축제 선정평가에 참석해 시흥월곶포구축제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로써 23개 축제 중 상위등급 6개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 운영비와 홍보비, 핵심 프로그램과 콘텐츠 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2012년에 처음 개최한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축제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시흥시 대표 지역축제로, 월곶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매년 10월마다 월곶포구 일원에서 개최되며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월곶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와 관광객 문화수요를 충족하는 문화공연을 통해 축제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시흥월곶포구축제는 10월 6~9일에 개최돼 맨손 활어잡기 체험, 어선승선 체험, 공연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일상회복이 시작된 만큼, 도비 지원을 기반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발굴에 집중하겠다. 이로써 시흥월곶포구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관광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이자, K-시흥시를 완성하는 원동력이 될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경기도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경기문화재단 주최,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17개소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완료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청산의 가치 확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리하고 친일문화잔재 청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마련한다.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 성과공유회’는 3월 3일(금) 13시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경기도는 2020년 4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성과물을 포털서비스(https://moveforward.library.kr)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2021년 5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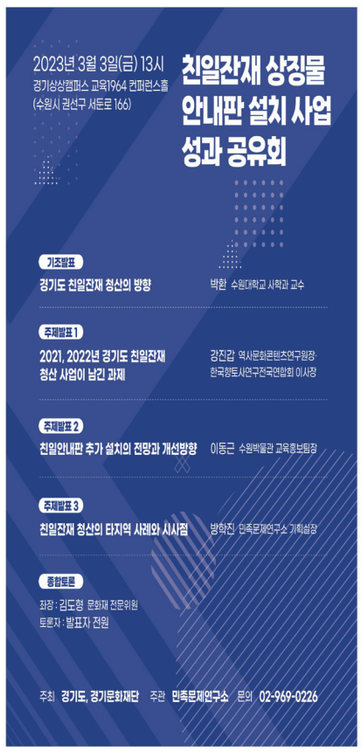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일제·친일잔재 청산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부터이다. 이후 2021년까지 총 29개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통해 파악된 친일잔재 상징물에 대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7개소에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다.

성과공유회는 2021~2022년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리하고 친일잔재 청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로 진행한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의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이 ‘2021·2022년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사업이 남긴 과제’, 이동근 수원박물관 교육홍보팀장이 ‘친일안내판 추가 설치의 전망과 개선방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친일잔재 청산의 타지역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끝으로 김도형 문화재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도민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청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현장에서 신청 후 성과공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포항문화재단, 2023 스틸아트매니저 ‘SAM(Steel Art Manager)’ 모집

작품과 교감할 수 있는 SAM(Steel Art Manager) 오는 3월 15일까지 모집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3월 15일까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공공예술 작품을 관리하게 될 ‘SAM(Steel Art Manager)’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철강 도시의 이미지를 살려 ‘철’을 특화한 예술축제로, 2012년부터 11년간 지역 철강기업체, 전문작가, 시민들이 참여한 작품 190여 점이 포항 시내 곳곳에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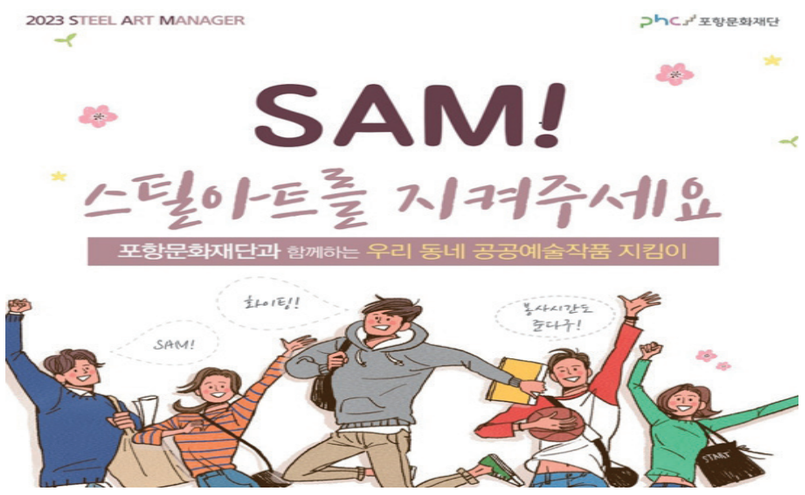
‘SAM(Steel Art Manager)’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공공예술작품 현장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스틸아트 매니저로, 2021년부터 시민주도의 쾌적한 작품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돼 운영하고 있다.

SAM으로 활동하게 되는 55명은 포항 시내 작품이 배치된 20곳 중 희망하는 지역에서 격월 1회 작품 상태를 점검하며, 현장 활동에 앞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위촉장 수여, 1365 시스템 봉사 시간 부여 및 소정의 활동비, 우수 활동가 특별 시상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과 구글폼 신청서를 통해 하면 되고, 결과는 3월 20일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한국도자재단-(사)한문화진흥협회, 한국 도자 문화예술 국제교류 협력 위해 맞손

한국도자재단과 (사)한문화진흥협회가 2일 한국도자재단 이천 도자지원센터에서 ‘한국 도자 문화예술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주최하는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호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전통·현대 도자의 국제 문화교류 사업을 활성화해 한국 도자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사)한문화진흥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협회로 약 100여 개국 대사관과 문화를 교류하며 주한대사와 외교관이 참여하는 ‘세계 의상 페스티벌’, 국내외 한복 패션쇼, 한국 수교 국가 기념 문화행사 등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 도자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기타 각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정사무엘 (사)한문화진흥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자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향후 국제 도자 예술 행사인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남해관광문화재단 'DMO 공모' 3년 연속 선정 '쾌거'

치열한 경쟁 속, 지역 거버넌스 기반 온라인 전환사업 호평

남해관광문화재단이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사회의 여러 관광 관련 기업·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간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육성을 통한 지역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및 평가를 통해 2023년도 지역관광추진조직(DMO)사업을 선정했다. 1단계 본지원 사업과 2단계 후속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1단계 1년차 6개소, 2년차 6개소, 2단계 3년차 3개소, 연장 심사 4년차 1개소,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5개소 등 총 20개 지역을 선정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1년도 DMO 공모사업 평가에서 전국 2위(A등급)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3개 지역만 선정하는 2023년 후속지원 2단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남해 관광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DMO 공모사업에서 ‘지역과 관광객의 연결’이라는 비전을 갖고 남해관광 최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고객 접점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관광사업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온라인 전환사업과 함께 기초지자체 최초로 여행분야의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등 남해 관광의 진흥에 힘써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DMO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남해여행의 구독경제를 도입한 ‘남해 more’ 여행구독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한 지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탄탄남해’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남해 여행의 탄소포인트제를 지역 거버넌스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며, 청정 남해의 관광 브랜딩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문체부 역점사업인 DMO 공모사업에서 3년 연속 선정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남해가 전국 DMO사업을 선도하고 지역관광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중간지원조익임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DMO 플랫폼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대, 지속가능한 관광남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수원박물관, 제104주년 3·1절 기념 이벤트

3·1 만세운동 포토존에 사진 촬영하고, 인증하면 수원독립운동가 책갈피·태극기 배지 증정

수원박물관이 3·1절 제104주년을 기념해 3월 1일부터 5일까지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선양하는 이벤트를 연다.

관람객이 박물관 1층 로비에 설치된 3·1절 만세운동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안내데스크에 사진을 제시하면 수원독립운동가 책갈피와 태극기 배지를 선착순 200명에게 증정한다. 또 수원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산루리의 독립영웅들’ 영상을 상영한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3·1절 104주년을 맞아 민족자존의 기치를 높인 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수원의 3·1운동을 이끈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를 선양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그 독립 정신을 시민과 공유할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박형준 부산 특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치 교섭·홍보 총력전 펼쳐

2.28. 남아프리카 현지 언론과 인터뷰 진행… 프리토리아 뉴스와 더스타, 더 머큐리, 케이프 타임즈 등 영자 일간지 보도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확대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7일과 28일 두 번째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찾았다.

박형준 특사는 부산시, 외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한국 측 관련기관과 해외주재 한국 기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섭국 맞춤형 특사단을 이끌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 활동을 벌였다.

먼저, 박형준 특사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당 내 유력인사로서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나레디 판도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박형준 특사는 판도 장관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2024 한국-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초청하는 윤석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판도 장관의 관심과 특별정상회의에 협조를 당부했다.

판도 장관은 "남아공 내에 이미 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주재하고 있고, 현재까지 투자를 계속해왔던 만큼 대한민국은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입장은 우호협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박형준 특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전 참전과 같이 양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며, 작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와 행사가 이어진 만큼 올해 고위급 교류와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삼성 등 30여 개 우리 기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내 최대 교역국이다"라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과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기회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판도 장관은 "삼성, 현대. LG 등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라며 사의를 표했다. 또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가 아프리카 대륙의 통상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한 만큼,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생산역량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나아가 한국과 남아공 간 실질 협력기반도 확충해 주길 기대한다"라며 대한민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박형준 특사는 "한국 정부와 부산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고민 중인 전력, 에너지믹스, 원자력,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하는 한편, 이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세부적 맞춤형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판도 장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노후화되어 이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전력 문제가 심각해 석탄발전소 개선, 소형원전 확충,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 수소발전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 성장의 경험과 관련 사례, 재정 및 통화정책을 공유받기를 희망한다"리고도 밝혔다.

박형준 특사와 판도 장관은 이번에 협의한 실질 협력사업들을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과 주한남아공대사관, 그리고 관계부처 및 기관, 기업 간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준 특사는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단기적 협력관계가 아닌 장기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며,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희망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024년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고 소개하면서,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초청하는 윤석렬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박형준 특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한 삼성, 현대, LG, 포스코, 한전 등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장 및 동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형준 특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참석기업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유치 홍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날인 2월 28일 오전에는 남아프리카 현지 언론인 프리토리아 뉴스(Pretoria 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프리카 방문 이유와 소감,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와 후보 도시 부산의 장점, 향후 유치 및 실사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분위기를 확산했다. 박형준 특사의 인터뷰는 더스타(The Star), 더 머큐리(The Mercury), 케이프 타임즈(Cape Times) 등 3곳의 현지 영자 일간지에도 동시 게재됐다.

박형준 특사는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을 통해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양국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는 한편 양국이 중요한 파트너국가임을 확인했다. 특히,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차원의 우호적 시각을 확인하고, 지지 분위기를 단단하게 다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박형준 특사는 "이번 아프리카 순방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가 역량을 키울뿐 아니라, 양국 간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겠다"라며, "부산시,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실질적 맞춤형 교섭 전략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최선을 다해 설득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유치 의지, 그리고 부산의 매력과 유치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려 반드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최고의 동탄을 완성하는 시그니처 에코 라이프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3월 분양

- 동탄2신도시 마지막 개발지구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
- 'e편한세상'만의 혁신 설계가 적용된 중대형 평형의 프리미엄 주거단지
- 스카이라운지, 패밀리 시네마, 키즈체육관 등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조성
-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청약, 대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장점까지 갖춰

DL이앤씨(DL E&C)는 오는 3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세대, 115㎡ 94세대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한국적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에는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스카이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체육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중심적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적용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 동탄2신도시 마지막 개발지구 '신주거문화타운', 쾌적한 주거환경 갖춰

완성형 신도시로 꼽히는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호재로 수도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현재 주거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번 신주거문화타운 공급이 동탄2신도시의 진입의 마지막 기회로 평가 받고 있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공원과 녹지 면적이 넓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효제봉 자락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단지 가까이서 즐길 수 있으며, 신리천과 신리제2저수지, 왕배산3호공원 등도 인접해 다양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 신주거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도 가능하다.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이미 조성이 완료된 남통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 'e편한세상'만의 혁신 설계가 적용된 중대형 프리미엄 주거단지

전 세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동간 간격을 크게 넓혔으며, 이를 통해 저층 세대도 우수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 세대당 주차 대수도 1.79대에 달해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세대 내부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 또 안방 전면 발코니에 배치되던 실외기실을 후면으로 배치해 소음은 차단하고, 가구 배치와 공간감을 극대화한 확장형 안방으로 설계된다.

편리한 일상에 자부심을 더하는 고품격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최상층에는 도심과 자연의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배치될 예정이다. 프라이빗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시네마,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키즈체육관 등 지역 내 최고 수준의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테라스형 게스트 하우스와 단지 내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카페, 건식 사우나를 갖춘 피트니스 등 입주민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될 계획이다.

프리미엄 조경 설계도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 계절감을 즐길 수 있는 정원과 바닥 분수대 등으로 구성된 '드포엠 파크(dePOEM Park)'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 속 산책로 '미스티 포레(MISTY FORET)'가 도입돼 단지 곳곳에서 자연의 쾌적함과 여유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 스테이션이 설치되며, 미스트 분사 시설물과 미세먼지 저감 식재를 배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지상 1층과 지하층 공용홀 마다 공기청정, 환기, 제습, 보조냉방이 가능한 복합환기시스템이 적용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세대 내부는 '안티바이러스 공기 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적용돼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 청정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24시간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규제 완화 방침으로 1주택자도 당첨 가능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되며, 1.3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라 동탄2신도시는 최대 8년이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 예정일 2024년 11월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예정)로 계약자들은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청약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1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를 노려 볼 수 있다.

■ 2022 시공능력평가 3위 DL이앤씨 시공…브랜드 프리미엄 기대

2022년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AA-)과 시공능력평가 3위에 이름을 올린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파트로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e편한세상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10회 수상,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지속 수상,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총 8회 수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합리적인 분양가는 기대되면서, 각종 규제에서는 벗어나 동탄2신도시에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라며 "e편한세상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신주거문화타운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일원에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양시현/기자